

# 부산불교연합회 팔관대재 봉행

## 10월 17일 부산 범어사에서



10월 17일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본사 금정산 범어사(주지 수불 스님)에서 주최하는 팔관회가 조계종 제14교구 봉행했다.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금정산 범어사 열린 팔관회는 고려시대에 국왕의 주관아래 열린 불교행사이다. 이날 법회는 팔관계수계식과 영산대제 등 전통불교 행사가 다양하게 거행됐다.

총지종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자석사 주교),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법상인 전수(정각사 주교), 신인록 부산·경남 교구 신정회 지회장, 지종영 정각사 회장 및 교도들과 서병수 부산시장 등 관계 기관장들이 동참했다. 정각사합창단은 부산불교연합회합창단으로 무대에서 음성공양을 올려 많은 사부대중의 박수를 받았다.

정각사=김윤경 통신원

# “개명심공, 진각종 스승답게 사는 수행실천”

## 진각종, 진기 69년 추기스승강공 봉행



진각종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리와 교법의 연찬을 통해 중생교화, 불교중흥, 종단발전을 서원했다.

진각종은 10월 20일 서울 총인원에서 진기 69(2015)년 추기 스승강공을 ‘개명정진’을 주제로 봉행했다.

성초 총인은 추기 스승강공 법어를 통해 “심인은 우리의 본래 성품으로서 자성이며, 심공은 자성을 깨달아서 의뢰하지 않고 내가 실천하는 공부”라면서 “마음의

미묘한 공능을 믿고, 마음의 본래 자성은 심인이고 심인은 곧 부처라는 진리를 깨달아서, 우주의 법신불과 지성의 법신이 하나인 사실을 증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각행자는 늘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행실천을 강조했다.

교육원장 경당 정사는 “개명정진이야말로 우리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할 수행과 교화의 기본”이라며 “종조님께서 밝아오는 여명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실

것처럼 ‘개명정진’을 주제로 한 이번 강공이 다가올 천년을 달려가는 종단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원장 회정 정사는 “하루에 제일 먼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개명심공이며, 진각종 스승답게 살아 가는 것 또한 개명심공에 있다”며 개명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정 정사는 또 “스승이 스승다울 때 교화가 활성화 되고 심인당이 발전할 수 있다”며 “스승다운 스승을 만들어 가는 추기강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루 일정으로 열린 추기 스승강공은 오전 9시 무진설법전 예참불사(집전 교무부장 법경 정사)와 전법연화·금강관정불사에 이어 개회불사(집전 총리원장 회정 정사), 성초 총인 법어, 주제강론(교육원장 경당 정사), 교법강론(불승심인당 교화스승 자각해 전수), 중정보고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회향했다.

# 태고종 제 40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새스님 39명 탄생

## 태고총림 선암사서 정수원 3개월 수계교육



39명의 태고종의 새 스님이 태고총림 선암사 정수원에서 3개월 합동교육을 마치고 탄생했다.

태고총림 선암사 정수원(정수원장 설운, 선암사 주지)에서 3개월간 진행된 태고종 제40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회향법회가 10월 22일 태고총림 선암사 대웅전 앞에서 해초 종정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했다.

승범스님(선암사 총무국장)의 사회와 법정스님(선암사 교무국장)의 인례로 시작된 법회는 타종 10주, 종사이운(종정 스님 및 중진원로), 삼귀의, 반야심경, 선조사 스님에 대한 묵념, 청법계, 입정, 중정 법어, 공지사항으로 1부 법회가 봉행되었다.

수계산림 교육우수자 표창에서 최우수상은 총무원장 도산스님이 일조(계동환)행자에게, 우수상은 정수원장 겸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가 철안(전우식) 행자에게, 모범상은 정수원장 겸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스님이 법신(최성규) 일동(김정태) 모관(이복희) 행자에게, 봉사상은 정수원장 겸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가 해공(김재권) 법공(김종학) 지안(장영석)행자에게 전달했다.

정수원 수료증은 해신(송찬수)행자에게, 수계증은 덕향(김지진)행자에게 대표로 수여했다.

해초 종정스님은 법어를 통해 “제40기 득도하시는 분들요. 옛날에는 득도하면서 법문을 듣지 않으면 땡초라고 해요. 정식으로 총림에서 득도하면 법문을 들어야 합니다.”라며 “석문의법을 보면 큰바위돌이 횡으로 종으로 삼만리나 되는 돌이 있어요. 득도하여 종노릇 잘 못하면 삼만리 바위 밑에서 바위가 다 없어질 때까지 머리 들고 나올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중정 해초스님은 “득도하고 스님 되면 생활을 잘해야지 세속 생활하면 삼만리 바위 밑에 갇혀서 억겁이 지나도 못나와요. 종노릇 잘하시길 바랍니다. 가사저락이 삼만리 자락을 돌면서 바위가 다 없어질 때까지 세상에 다 못나온다는 말씀을 명심하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이날삼사는 전계아사리 총무원장 도산 스님, 교수아사리 원로의장 덕화스님, 갈마아사리 중앙원로의원 태고총림 선암사 회주금용 스님이 참여했다.

철증사는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설운 스님, 경남총무원장 지현스님, 대구·경북 총무원장 관정스님, 강원총무원장 백운 스님, 광주·전남 총무원장 호산스님, 전북 원장 도광 스님, 중앙 선거관리위원장 해일 스님이 자리에 앉았다.

2부 수계식에서 수계자들은 3배를 올린 뒤 호쾌합장을 하며 “원컨대 큰스님은 수계본사가 되어 주소서. 저희들은 덕 높으신 큰스님을 의지해 사미(나) 십계를 받사옵고 부처님의 올바른 불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청사를 올렸다.

수계자들은 세상의 애착을 끊고 출가하여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의 마음으로 불 법승 삼보전에 3배를 올린 후, 석가모니 정근을 하는 가운데 수계자 체발대표 지원 행자에게 삭발을 하는 체발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어서 무시갈래 조각지업(所作之業)을 불보살님 전에 참회하는 연비의식을 진행하니 수계자들의 참회진언이 조계산 창공을 흔들며 퍼져 나갔다.

갈마아사리 중앙원로의원 태고총림 선암사 회주 금용 스님의 선창에 따라 열 번째 계가 설해지고 나자 정대계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계대중은 흥가사를 수했다.

수계자들은 다 같이 합창하고 회향계를 염송하며 월성 사미가 대표로 수계증을 받았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의 밤 개최

## 11월 16일 18시, AW컨벤션센터...500명 초청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는 한국불교 중흥의 염원을 실현하는 대작불사입니다. 사부대중이 동참 하여 원만한 회향이되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 위원회(총도감 지현 스님)는 10월 26일 오전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 16일 18시, AW컨벤션 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 500명 을 초청하여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의 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도감 지현 스님은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고 범불교적인 불사의 시작으로 사찰 및 신도가 모연 약정 및 기금 전달을 통해 사부대중이 함께 동참하는 불사로 나아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는 사부 대중이 동참하는 종단 역사상 가장 큰 불사이며, 모연의 밤 행사를 시작으로 사부 대중이 동참하는 모연

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현재 우정국공원과 조계사 일주문 사이 상아불교사 건물과 조계사 신도회 건물은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주변 상가 주인들과 얘기를 진행중이지만 협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2월중이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2017년 10월에는 기공식이 진행 된다”고 말했다.

참석 및 초청대상 500명은 원로 회의 의장스님, 총무원장 스님, 총도감스님, 상임부 위원장스님, 종단 교역직 스님, 중앙총회의원 스님, 직할사찰,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 분담금사찰, 문화재관람료 사찰 주지스님 및 신도, 중앙신도회 임원,

직할교구 신도회 임원, 재가단체 대표 등이다.

이날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모연의 밤에서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소개, 기금전달 및 약정, 공연(청량사 어린이밴드, 소리아 밴드)등이 펼쳐진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는 2008년 3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2013년 8월 20일, 서울시와 ‘견지동 역사 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 MOU체결을 했으며,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는 10·27 법난기념관 1동, 10·27 법난기념관 2동, 전통 역사 문화공간으로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1단계(~2018년 12월)로 10·27법난기념관 1동, 2동을 짓고, 2단계(~2022년 12월)는 전통 역사문화공간 - 템플스테이 체험관, 아케이드, 주차장을 건립 한다.

한편 모연의 밤 행사는 초청장 소지자에 한하여 입장 가능하다.

#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개 천 사	강 순 시	10/21	10,000
관 성 사	황 성 녀	10/2	10,000
	인 선	10/19	20,000
	김 대 기	10/23	10,000
기 로	해 정	9/25	10,000
	대 관	10/19	10,000
	밀 공 정	10/19	10,000
	법 수 원	10/19	10,000
	법 장 화	10/19	10,000
	법 지 원	10/19	10,000
	불 멸 심	10/19	10,000
	사 흥 화	10/19	10,000
	상 지 화	10/19	10,000
	수 증 원	10/19	10,000
	선 도 원	10/19	10,000
	총 지 화	10/19	10,000
	일 성 혜	10/19	10,000
	지 공	10/19	10,000
	지 회 심	10/19	10,000
	원 봉	10/20	10,000
	지 선 행	10/20	10,000

기 로 스승, 자비회			
	복지찬조금	10/27	180,000
단 음 사	법 연 지	10/20	10,000
덕 화 사	시 정	10/11	10,000
	원 만 원	10/11	10,000
	이 상 옥	10/11	10,000
밀 인 사	정 정 희	10/2	5,000
	이 채 원	10/21	10,000
	이 연 주	10/21	10,000
	이 기 상	10/11	10,000
	안 옥 진	10/11	10,000
	이 성 수	10/11	10,000
	박 주 연	10/11	10,000
	이 혜 성	10/12	30,000
	이 수 연	10/11	10,000
	김 윤 정	10/21	10,000
밀 행 사	무 명 씨	9/25	50,000
	무 명 씨	10/23	10,000
백 월 사	이 갑 진	10/15	20,000
	진 평	10/20	5,000
벽 룡 사	양 정 현	10/6	10,000

양 지 현	10/6	10,000	
수 인 사	무 명 씨	10/2	10,000
	정 순 득	10/15	10,000
선 립 사	심 지 장	10/21	10,000
실 지 사	송 우 섭	10/6	10,000
	정 경 자	9/24	10,000
	조 성 우	10/2	10,000
일원어린이집			
	강 경 화	9/25	10,000
	김 용 미	9/30	10,000
	하 재 희	9/30	30,000
	김 지 연	9/25	10,000
	이 준 동	9/25	10,000
	김 지 영	9/26	10,000
	구 미 자	9/30	10,000
	이 향 례	9/25	10,000
	이 현 직	9/25	10,000
	천 소 영	10/12	10,000
	김 지 영	10/23	10,000
운 천 사	무 명 씨	10/20	10,000
정 각 사	변 순 개	10/6	10,000

탁 상 달	10/21	20,000	
지 인 사	승 효 제	10/20	10,000
	지 성	10/20	10,000
	허 성 동	10/22	30,000
초록어린이집			
	황 화 성	9/25	30,000
총 지 사	법 등	10/5	30,000
	이 인 성	10/12	30,000
	장 동 옥	10/7	30,000
	구 나 영	10/5	10,000
	김 병 관	10/5	10,000
	박 정 희	10/19	10,000
	신 용 도	10/19	10,000
	손 경 옥	10/25	10,000
통 리 원	김 평 석	10/5	10,000
흥 국 사	지 정	10/20	20,000
해 정 사	최 영 례	10/20	10,000
	이 형 근	9/25	10,000
화 음 사	무 명 씨	10/2	10,000
사원명무기재			
	김 갑 선	10/19	10,000

이 봉 선 10/2 10,000  
9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제4회 세계불교포럼 발표 논문 요약

# 생활이 불법이고 불법이 생활이다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화 령



▲ 제 4회 세계불교포럼에서 중국어로 발표하는 화령정사

### 사회에 이바지해야 진정한 성불이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이다. 그것은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향하여 나아가 갈 때 가능하다. 즉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신을 버리고 대중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갈고 닦을 때 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하여도 공업을 짊어진 이 사회가 안정하지 못하면 나 또한 행복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깨달음을 이루신 후 세간으로 돌아와 국왕, 대신으로부터 장자, 천인에 이르기까지 중생들의 무지를 타파하는 데에 힘을 쏟으셨다. 과거에는 불교의 가르침이 출가 승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모든 경전이 공개되어 있고 이후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불교 안내서적들이 과거의 수많은 스승들을 대신하고 있다. 스승과 스승 사이로 이어지던 법의 계승도 이제는 공개된 활자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이는 누구든지 모든 경전을 마음대로 구해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지침서 역시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단지 자기보다 앞선 선지식이 있다면 더욱 빠른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지금의 시대야말로 출가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고도 2500년 전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시대이다.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불교의 진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성불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추구해 가야 한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불교의 인과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실천되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담배에 습관이 되어 괴로워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어 버리면 그 순간 담배로부터 해탈되는 것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에서 벗어나고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을 멀리하게 되면 그것이 곧 술에서 해탈되는 것이고 도박에서 해탈되는 것이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질투심을 여의게 되면 그는 질투에서 오는 괴로움에서 해탈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가 지고한 최상의 성불을 바라기 이전에 일상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욕심과 성내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성불에 다가가는 것이 된다. 마음의 제어에 의하여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맛볼 수 있으며 그러한 평화가 이웃에게 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곧 불국토의 건설이며 불자들의 사명이다. 대중들과의 소통을 뒤로 한 채 고답적인 교리만 늘어놓으며 사회의 부조리로부터 눈을 돌리거나 인간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열반이며 해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성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출가 승단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고요함을 유지하다가 현실사회와 접촉했을 때 소통을 하지 못하고 현대의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상구보리는 이루어지지 모르지만 화화중생이라는 책무는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아울러 신사를 아끼지 않은 재가신자들에게도 큰 빛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큰길을 갈 때는 보살이지만 버스를 탈 때는 중생이 되어버린다는 말처럼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는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중들과 함께 하는 순간 도심(道心)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된다면 출가생활이 오히려 세속의 더러움 속에서 연꽃을 피어 올리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인도 항상 세속인을 제도하기 위하여 세속과의 소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깨달음은 출가승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출가를 하지 못한 재가불자들에게도 성불의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지금 시대의 불교는 출가와 재가를 초월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그러한 실천을 통하여 자신이 먼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며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하여 시실된 것도 아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성불의 계단을 마련하셨다. 누구나 올라 갈 수 있는 성불의 계단을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기 까지 부처님께서 친절하게 사다리를 놓으셨다. 우리는 자기의 눈높이에 맞추어 거기서부터 성불의 첫걸음을 내디딘다. 누가 빨리 올라가느냐는 자기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이제 불교는 어느 한 집단의 전유물이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출가라는 형식을 통하여서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불교가 되어서도 안 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누구나 함께 손잡고 걸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불교, 세속 가운데에서 민중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성불을 향해 가는 그러한 불교라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장 이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느껴 볼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불교라야 한다. 불교지도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상구보리와 화화중생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와의 소통과 함께 일상생활을 깨달

음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싶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과 진리에 의지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 길을 가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 그렇게 보면 진리도 결국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출가승이 되면 재가불자로 남아 있던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되고 그것을 푸는 열쇠도 결국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사회와의 소통없이 자신에게만 침잠하게 되면 소승의 길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출가는 재가는 불자들이 자신의 괴로움을 제거하고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면서 자신의 능력과 활동을 통하여 사회를 이롭고 평화롭게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연기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결코 도달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밀교의 대표적 경전인 《대일경》에서는 “방편을 구경(方便爲究竟)으로 한다고 했다. 이것은 깨달은 자라도 혼자만의 법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중생구제에 그 깨달음을 이바지해야 진정한 성불이 된다는 의미이다.

### 일상생활에서의 인격도야가 성불의 초석이다

불교는 오랜 세월을 경과하면서 교리가 세밀해지고 다양화 되었다. 그것과 함께 불교의 깨달음이란 것도 관념화되어 버린 경향이 강하다. 일반 불자들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하여 아예 불교 수행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고 자신의 복이나 비는 식으로 흘러가 버렸다. 이것은 대승불교가 무르익으면서 깨달음을 관념화해온 결과이다. 관념적인 깨달음은 자신을 위해서나 인간사회를 위해서나 그다지 소용이 없다. 인간 사회에 무익한 혼자만의 관념적인 깨달음은 목적보다도 소용이 없다. 인간사회에서 유용한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그렇게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열고 저것거리로 돌아와서 많은 대중들을 교화하신 것이다.

부다의 원래의 가르침은 관념적인 깨달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도 돌아보지 말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가르침이 부다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계행의 준수에 의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육바라미의 실천과 오계의 준수를 통하여 자신을 제어하며 오계의 확대를 통하여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매 순간 자신을 놓치지 않는 자기 성찰이 필수적이다. 매 순간 자신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생활 그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고 일어나서 세우고 밥 먹고 일터에 가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그 과정 모두가 수행이 되어야 한다. 운전을 하거나 집사를 닦고 방청소를 하며 사람들과 일에 대하여 의논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수행이 되어야 한다.

성불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을 목표로 두기 전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다만 1%라도 부처에 가까워지겠다는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1% 성불하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점점 완전한 부다의 모습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성불이라는 거창한 목표 앞에 주눅이 들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행의 자세이며 이웃에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 수행을 바탕으로 무한한 자비심과 함께 자기 가진 사회적 역량을 힘껏 발휘하여 중생계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다의 의도일 것이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세계·정·혜를 실천하며 사회 속에서 대중들의 무지를 일깨우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정진하는 모습이 진정한 대승보살의 모습이다. 여기에 무슨 출가, 재가라는 것이 큰 의미를 지녔는가?

승속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스스로 주의, 관찰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타파하고 탐진치를 다스리며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든 중생과 사회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이 곧 불국토를 이루는 길이 아니겠는가? 재가불자는 오히려 출가자들보다도 인간사회의 현실을 더 잘 직시할 수 있으며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에 눈뜰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현실적 시련에 부딪쳐야 하는 재가불자들이 때로는 출가승보다도 오히려 더 원만한 인격을 갖추 수 있고 더 많은 깨달음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며 인간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할 길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궁극의 경지는 깨달았다는 의식이 없어도 모든 것이 법도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불자들의 궁극 목표는 성불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먼저이다.

가정과 사회에 머물면서도 거기에서의 역경과 시련을 수행의 도구로 삼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실천하고 후세에 이어 간다면 그것이 곧 훌륭한 승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의 소통은 성불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은둔수행자가 반드시 더 빨리 깨달음에 이른다는 생각은 이제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 진부하고 고루한 생각이다.

불교를 생활화하고 생활을 불교화하게 되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불법 아닌 것이 없고 모든 불법은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영위하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상구보리 화화중생은 중생들과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중생 속에서의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 갈 때 완성될 수 있다.

## 총지종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관성사**  
주 교: 정사 인 선  
전수 정계월  
☎ 02-736-0950

**밀인사**  
주 교: 종사 원 당  
전수 묘심해  
☎ 02-762-1412

**법천사**  
주 교: 정사 법 경  
전수 덕 현  
☎ 031-751-8685

**벽룡사**  
주 교: 정사 법 일  
전수 자 행정  
☎ 02-889-0211

**총지사**  
주 교: 정사 법 등  
전수 인덕심  
☎ 02-552-1080

**실지사**  
주 교: 정사 법 우  
전수 인지심  
☎ 02-983-1492

**정심사**  
주 교: 종사 화 령  
☎ 02-491-6888

**지인사**  
주 교: 정사 지 성  
전수 승효제  
☎ 032-528-2742

**시법사**  
주 교: 정사 서 강  
☎ 032-522-7684

# 한국불교가 나아갈 모델 제시한 불교총지종



▲ 현대불교신문 김주일 부장

## 시대의 트렌드와 키워드를 발빠르게 먼저 읽어, 실천에 옮긴다면 국민들은 분명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줄 것이다

을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노력한 불자들이 노후에 생활고 때문에 이웃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아 가슴이 아프다. 각 종단과 사찰들이 신도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구제의 종교다. 철학적으로는 고(苦), 공(空), 무상(無常), 무아(無我)를 설하고 해탈과 자비의 종교라고 하지만, 결국 인간이 완전한 인격자 불타가 되는 길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이다. 즉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를 안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불교의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 정신과 실천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기본 이념은 인생관으로서의 무상관과 상호 의존의 무아관이다. 불교의 사회복지 활동은 인간관계의 상호성을 현실적으로 바로 인식함으로써 그 상호적인 공동생활 속에서 인격관계로의 지향을 중심으로 서로 자타의 가치를 높이면서 인간 상호의 결합을 유지 확충할 것을 기도함에 있다.

불교는 또한 인간의 번뇌속에서 해탈(解脫)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지는 인간이 처한 상황이나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행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인간은 생로병사의 한계와 그로 인해 개인적인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 착취와 억압, 불평등이나 소외와 같은 사회 구조의 모순에 의해서 사회적인 고통을 겪으며 생활 한다.

진정한 치유는 분명 몇 마디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법문을 듣거나 교리를 배우면서도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다양한 제도과 이념, 과학적 기술들을 발전시켜왔으며, 이런 노력들은 지금도 계속된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의 개인적 · 사회적 고통서 해탈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서 불교의 사

회복지는 출발한다.

이런 기본이념에 충실한 불교 총지종은 1972년에 창종해 현재 정사 100명에 신도는 약 5만명 을 헤아린다. 또한 전국에 36개 사원과 1개의 종립학교(부산동해중학교)를 운영 중이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와 '힐링문화 조성' '청소년 교육' 등에서 새로운 신모델을 표방하며 거듭 발전해 오고 있다. '청소년 인성향상 캠프'와 '참 나를 찾아 떠나서 여행', 20년 전부터 운영해 온 청소년 수련회, 10년 전부터 부산서 운영 중인 방과후지도기관 '바라밀 지역 아동센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불교 총지종은 일찍부터 세쌍 불자 포교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서울 일원어린이집, 초록어린이집,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 집 등도 이러한 불사 목적으로 설립해 활발히 운영중이다. 교도와 국민들이 한국불교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해 실천해 옮기고 있다.

종합치유센터를 개원해 '힐링'을 주제로 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것도 좋은 예이다. 불교총지종은 서울 역삼동 총지사내에 위치한 총지불교문화센터에 종합치유센터 '어울림'을 개원하고 지역민들을 위해 힐링 문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내면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만든 기관이다. 건강한 인간관계와 아름다운 삶의 양식을 체득하기 위한 국제적인 인문교육의 장으로 발돋움 중인 힐링센터는 불교 총지종이 중단사상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진정한 치유는 분명 몇 마디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법문을 듣거나 교리를 배우면서도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교 총지종의 종합치유센터인 '어울림'은 오늘날 그 요구가 증가하는 각종 힐링 요법들을 종합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자 하는 취지에 따라 운영중이어서 교도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호응도가 높다.

종합치유센터 어울림은 다양한 분야서 약 40여개 프로그램

램을 운영중이다. 상담과 진단 프로그램을 비롯해 연극, 음악 미술 등의 예술치유와 자연 치유, 요가, 태극권 등의 심신 치유,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가족과 직장 내에서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힐링 요법과 프로그램들의 과학적 검증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희대 비폭력연구소, 한성대 중독예방교육원 등 유명 학계와 연계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중이다. 또한 매년 세계 각지의 힐링 리더들과 힐링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국제 힐링 캠프도 열고 있다. 특히 개원 특별행사로 초대 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얀마 마하시 명상센터 이사인 자가라 스님은 큰 인기를 끌었다. 자가라 스님은 센터에 머물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마하시 명상센터 수행법 그대로 명상을 지도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많은 힐링 명사들이 있지만, 진정한 치유보다는 언어의 유희에 머물고 있다. 앞서서도 말한대로 진정한 치유란 일상 생활속에서 삶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이뤄진다. '어울림'은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각종 힐링 요법들을 종합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실천적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워지고 병든 삶에서 벗어나 바른 삶, 건강한 삶,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종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불교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종교의 수요 계층인 교도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고, 그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한국불교는 다시한번 중흥기를 맞을 수 있다.

불교 총지종의 예에서 처럼 시대의 트렌드와 키워드를 발빠르게 먼저 읽어, 실천에 옮긴다면 국민들은 분명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줄 것이다. 종교는 그 사회의 정신적 지주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종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불교는 이런 근본 취지를 잘 되새겨 정신적 공황에 빠진 현대인들을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100세시대에 접어든 만큼 평생 종단을 위해 헌신한 교도들을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자비심과 중생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을 수 있다. 그런 노력 불사에 적극적인 실천을 보이고 있는 불교 총지종에 등을 두드려 주고 싶다. 그리고 발원한다.

앞으로도 중생구제의 구체적 실천운동을 중단하지 말기를 말이다. 그것이 불교 총지종이 영원히 교도들에게 박수 받는 길이며, 한국불교 발전에 일조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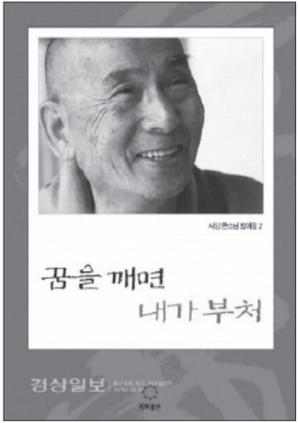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취재부장

## 총지종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b>전화사</b> 주 교: 정사 범 상 전수 정 원 ☎ 054-761-2466	<b>개천사</b> 주 교: 정사 우 인 전수 보 명심 ☎ 053-425-7910	<b>국광사</b> 주 교: 전수 혜 안 정 ☎ 054-772-8776	<b>단음사</b> 주 교: 정사 도 우 현 전수 지 현 ☎ 054-333-0526	<b>선립사</b> 기로스승: 보 원 심 지 장 ☎ 054-261-0310
<b>수계사</b> 기로스승: 안 주 화 ☎ 054-745-5207	<b>수인사</b> 주 교: 정사 안 성 전수 유 가 해 ☎ 054-247-7613	<b>승천사</b> 기로스승: 원 봉 지 선 행 ☎ 054-746-7434	<b>제석사</b> 주 교: 전수 행 원 심 ☎ 053-743-9812	<b>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b>

# 대중이 묻고 서암스님이 답하다 〈꿈을 깨면 내가 부처〉

불교서적  
에세이



서암스님/정도출판/1만6천원

20여 년 전 서암스님의 법문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법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눈빛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감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막 기뻐하고, 조금 나쁜 일 있어도 시무룩해 하는 게 중생심인데, 서암스님은 이런 감정의 동요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눈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살이를 힘들다고 하는 것은 감정 때문입니다. 슬픈 일 생기면 감정이 호들갑을 떨면서 슬픔을 더욱 과장되게 느끼게 해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윤회환생의 '바위'라는 시에서처럼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된다면 세상살이가 그렇게 힘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암스님은 저 앞을 걸어가는 등직한 선지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서암스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신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암스님은 조계종의 제8대 종정 이셨습니다. 퇴락해가던 문경 봉암사를 수좌가 1백 여 명 결제에 드는 조계종 특별종립선원으로 일으켜 세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 서암스님이 더욱 특별한 것은 스님은 평생 문중도 자기 절도 없이 수행자로서만 살았다는 것이며, 또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말년까지 시자 없이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꿈을 깨면 내가 부처〉는 열반 12주기를 맞이하여 정도출판사에서 출간한 서암스님의 두 번째 법어집입니다. 첫 번째 법어집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가 '생활선'에 대한 스님의 법문을 엮어놓은 것이었다면, 두 번째 법어집 〈꿈을 깨면 내가 부처〉는 참선 수행과 화두, 마음 다스리는 법 등에 대해 대중이 묻고 서암스님이 답하는 대담 형식의 법문집입니다. 특히 이번 법어집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소소한 의문점에서부터 공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행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쉽고 명쾌한 스님의 말씀이 담겨있습니다.

앞에서 서암스님의 눈빛이 유리구슬처럼 흔들림 없어 보인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법문이 소멸된 사람의 눈빛이었던 것입니다. 중생은 모름지기 업의 지배를 받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있어요. 선업은 우리 생활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길이고, 악업은 그와 반대로 고통과 핍박이 따르지요. 이러한 선업과 악업을 다 녹인 사람이라면 내 뜻을 내 마음대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업에 꺼들리면 습관에 꺼들려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지요. 입장 소멸이 다 된 사람은 내 뜻대로 산다는 거지요.' (231p '업장소멸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에서)

나다'는 속담 처럼 자신이 심어놓은 인연을 받는 것을 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좋은 인연을 심으면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나쁜 인연을 심어놓으면 미래가 암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인연이던 나쁜 인연이던 더 좋은 것은 인연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업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서암스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는 열반송을 남긴 서암스님은 평생 선 수행을 바탕으로 법문하면서 선에 있어서도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금쪽같은 진리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여의고는 우리 인간에게 하등의 이익이나 상관이 없다. 일상생활에서 손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울고 웃고 이웃 간에 항상 대화하는 그 속에서 24시간 불교를 찾는 생활, 그것이 선"이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 정열의 화가 천경자 화백 추도식,

### “예술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후대에 남기겠습니다.”



▲천경자

지난 8월 6일 91세로 타계한 한국 현대 화단의 거장 미인도의 천경자 화백 추도식이 30일 오전 10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1층 로비에서 가족들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시립미술관은 장소 마련과 추도식 행사 준비를 통해 기증 작가의 뜻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격식을 갖춰 예우했다. 또한 서울시립미술관은 '천경자 상설전시실' 내에 많은 시민들이 현화하고 애도를 표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11월 1일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유족대표로 나선 장남 이남훈씨는 “지난 10여 년 간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어머니의 심정을 해결해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하여 비참한 심정으로 죄인이 돼 있다”며 “어머님의 흔적 만이라도 자식 같은 작품이 있는 이곳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도위원장인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시인 고은과 함께 인연이 되어 만나 글과 그림 이야기로 교감하던 그때가 그림다”며 “용광로 같은, 활화산처럼 뜨겁게 살다가 바람처럼 가벼웠다”며 “천 화백이 한평생을 통해 보여준 예술에 대한 애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후대에 남을 것”이라고 추모의 뜻을 밝혔다.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 ‘그 역사적 가치를 말하다.’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발굴 성과 보고서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회장 조상기)와 함께 10월 28일 오후 2시 한국매장문화재협회(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에서 ‘양평 대평리 고분군 2호분’ 등 3개 유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문화재청은 한국매장문화재협회를 통해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하여 유적의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 양평 대평리 고분군 2호분(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 의성 대리리 45호분(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 장수 동촌리 고분군(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등 3개 유적을 선정하여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양평 대평리 고분군 2호분’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 중부 지역 최상위 계층의 신라 골식돌방 무덤으로 확인됐다. ‘의성 대리리 45호분’에서는 경주 전마총 출토품과 유사한 희귀 금제 귀걸이가 출토되었으며, ‘장수 동촌리 고분군’은 호남지역 최초로 말발굽에 박은 편자(蹄鐵)가 출토되어 학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발표회는 ▲ 양평 대평리 고분군 2호분(재)중부고고학연구소(소장 김권중) ▲ 의성 대리리 45호분(재)성림문화재연구원(원장 박광열) ▲ 장수 동촌리 고분군(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의 순서로 각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발굴된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힘써 나가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독문의 : 02) 552-1080

## “고대불교조각대전 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



▲ 용산이전 10주년 기념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 1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고대불교조각대전 - 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를 오는 9월 25일부터 2015년 11월 1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용산 이전 1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기념하고 이를 계기로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내용 면에서는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과거의

특별전시와 연결 된다. 1990년과 2008년에 각각 열린 〈삼국시대 불교 조각〉과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이 한국 고대의 불교조각을 망라하여 보여 주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 이번에 개최하는 특별전은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과의 교류 관계 속에서 한국 불교 조각의 전통을 조명한다. 이는 국립중앙 박물관이 2005년 재개관 이후 정기적으로 세계 주요 문명과 다채로운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고 세계 박물관, 미술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온 방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교조각을 테마로, 한 종교의 예배상이 창안되는 순간과 그 확산의 과정을 조감

했다. 본 전시에 출품되는 작품은 총 210건으로, 전시의 주제와 범위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전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도에서 불상이 처음 등장한 시기부터 우리나라에서 반가사유상 제작이 정점에 이른 700년경까지로 설정하였다. ‘불교조각’은 다양한 형식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상 성격의 불상과 보살상을 위주로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 김종열 기자

# 충지정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 만보사

주 교: 정사 송원  
전수 모원화

☎ 042-255-7919

### 백월사

주 교: 전수 환수원

☎ 042-527-5470

### 법황사

주 교: 정사 도현  
전수 자인행

☎ 062-676-0744

### 혜정사

주 교: 전수 진일심

☎ 043-256-3813

### 흥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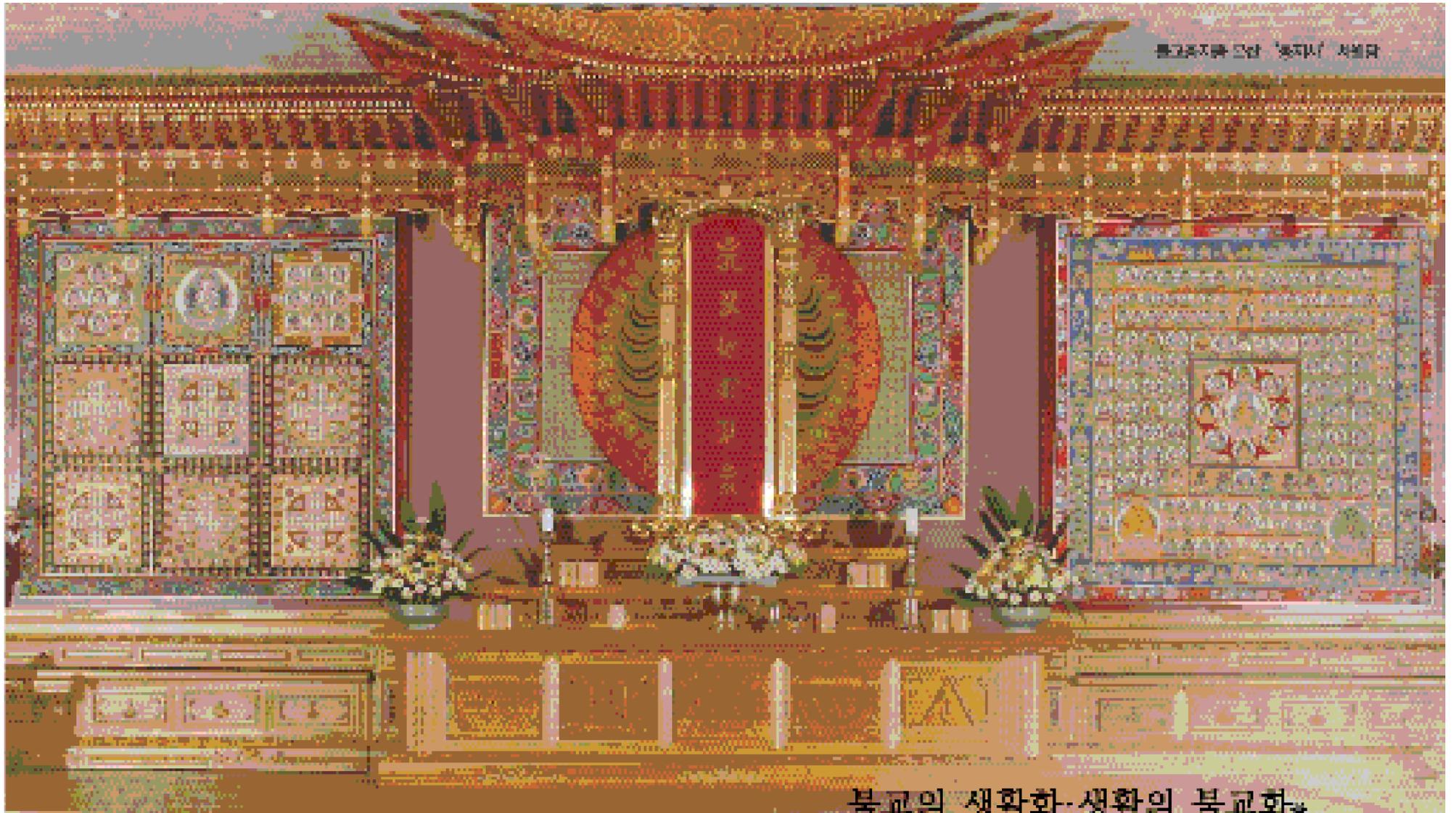
주 교: 정사 지정

☎ 063-224-4358

### 중원사

주 교: 전수 정정심

☎ 043-833-0399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총기 44년 총지종보는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흥포를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도님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증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기 44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총기 44년 7월 16일  
 가사원별 시행



불교충지중

충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충지중보

총기 44년  
2015년 11월 4일  
음력 9월 23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범등(구창회)

창간 20주년 특집호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9년 제192호



## 충지중보 창간 20주년 효강 종령 법어



총기44년 10월 24일은 충지중보 창간 기념법회를 한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뜻 깊은 충지중보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승단의 모든 스승님과 교도 보살님들 그리고 모든 불교도와 함께 자축하고자 합니다.

창간 20주년을 맞이하고 보니 충지중보 창간호 발행인으로써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충지중보를 통해 종단의 희망찬 소식을 교도들에게 전달하고, 더 나아가 교도가정, 사회, 국가에 불법을 통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충지중보 교도들과 구독자분들이 충지중보를 통해 삶의 지혜와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뒤엎고 있는 것은 바로 반목과 불신입니다. 이런 반목과 불신을 극복하고 화합과 소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지중보는 언론으로서 승단의 화합, 스승과 교도의 화합, 종단과 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도선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정확한 말을 갖춘 법을 설하라. 아주 원만하고 청정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세상에 마음은 먼지와 때가 적은 자도 있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한다면 쇠화할 것이지만, 법을 듣는다면 잘 알게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충지중보 또한 부처님의 진도정신을 이어받아 정법을 전하여 교도들과 불자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지중보 창간 20주년을 모두와 함께 기쁘하고 자축하는 바이며, 승단과 교도 여러분들에게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하며, 충지중보의 발전의 서광이 곳곳에 발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훎. 옴마니반메훎.  
옴마니반메훎.

총기 44년 10월 16일  
종령 효강 합장

## “참회와 화합으로 정통밀교의 교화 발전을 이루자.”

### 제86회 추계강공회 총본산 총지사 에서 봉행



▲ 제 86회 추계강공 종령 정신교육

총기 44년 불교충지중 추계강공회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총본산 총지사에서 봉행됐다. 전국의 기로스승을 비롯한 충지중 승단은 오전 9시30분 총지사 서원당에서 총무부장 인선정사의 집공으로 개강불사를 봉행했다.

3.7 의례에 이어 불교 충지중 효강 종령

에하는 법어에서 “여러분 하늘이 높고 청명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계 강공은 종조 원정대사사의 입교개종 정신을 되새겨 종단의 교상과 사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강공의 주제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화합하는 강공이 되고자 합니다. 참회는 세상

의 인연이 끝나는 날 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생애 못하면 다음 생애에서도 우리가 쌓은 업을 참회해야 합니다. 옛 선사들의 말씀에는 진심으로 참회하면 온몸의 털구멍에서도 피가 난다고 했습니다. 참회와 함께 우리는 화합의 근본정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사상은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고, 이세상의 모든 중생이 하나라는 진리입니다. 종조께서도 열반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화합하라는 유언입니다. 이번 강공에는 스승님 모두가 참회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서원합니다.”며 종조님 입교개종의 정신으로 참회와 화합의 승풍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강공을 통해 충지중 승단은 반야바라밀의 진리를 교화를 통해 많은 불자들에게 전하기를 서원합니다.”며 강공에 임하는 스승들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강공 원만을 서원했다. 이어 통

리원 2층 반야실에서 효강 종령 예하의 특별 정신교육이 이어졌다.

이번 강공에는 밀교연구소 소장 범경정사가 「불사법요 합승」, 「강도희사와 교화방편」을 강의하였고, 중앙교육원장 화령정사가 「업이란 무엇인가?」 강의가 있었다. 강공회에 앞서 원의회, 유지재단이사회,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연석으로 열려 중앙 중회에 상정 할 안건들을 심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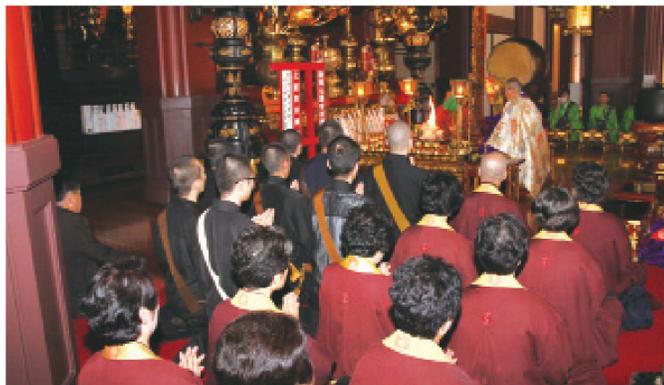
15일 공식불공은 사강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되었다. 화령 정사의 강의에 이어 오후에 열린 승단총회(의장 효강 종령)에서는 기로스승 이공 지급의 건, 사원 특약전 활성화, 중유 재산 매입의 관한 건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10월 15일 열린 중앙중회에서는 총기45년 예산서 심의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안건 등을 처리했다.

총지사=김종열 기자

## 불교충지중 전수 일본 불교체험연수

### 10월 27일부터 동경 일원 사원 참배



▲가와사키 평간사 호마의례에 동참한 연수단

사, 하코네 아미다지(阿彌陀寺)를 참배하고, 밀교의 식재법인 호마의식과 법회 등에 동참했다.

연수단장 범등 정사는 “이번 일본불교 체험연수는 의례의 방법은 다르지만, 밀교의 큰 바탕 아래 교도들의 소구 식재와

즉신성불을 위한 수행법 등을 비교 체험하여, 일선 교화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갖고자 위해서입니다.”며 이번 연수의 의의를 전했다.(관원기사, 화보 7,8,9면)

도교=김종열 기자

## 지면 안내

- 1면 불교충지중 전수 일본연수 (1,7,8,9면)
- 3면 금산사 불교 소리축제
- 4면 화령정사 세계불교 포럼
- 6면 추계강공 강의요약
- 7,8,9면 충지중 전수 일본불교 연수 화보
- 11면 창간특집 불교언론의 역사
- 12면 박물관 순례
- 13면 창간특집 한국불교가 나아갈 모델 불교 충지중
- 15면 서적 에세이

## 새로운 종풍운동

-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미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흥포(弘布)합니다.
-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창간 20주년 기념 특집호 16면 발행

www.chongjinews.com

## 창간 20주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정통밀교 충지중보가 총기 44년 10월 16일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교도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성년이 된 충지중보는  
진언밀교 흥포를 위한 최선의 방편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지중보 전국통신원 일동 합장



# 제134차 승단총회

## 종단 현안 및 교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불교총지종은 10월15일 제134차 승단총회를 열고 종단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의견을 수렴했다.

승단총회의 의장 효강 중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총기44년 일선 교화에 노력을 다하신 스승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회와 화

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총지종의 전기를 마련하는 대역사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현안설명을 잘 들으시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승가의 전통에 따라 대중공사의 참 뜻을 실천하기를 서원

했다.

이어 통리원장 법등정사는 중앙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보고하고 스승들의 물음에 답하였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승단 총회는 화합 종단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 종단 발전을 위해 남은 생을 다하자

## 10월 22일-24일 기로스승 추계 관불



▲ 단양 도담삼봉에서 기념촬영하는 기로스승들

불교총지종 기로스승들이 한 자리에 모여 종단의 발전과 교화를 위한 서원의 시간을 가졌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간의 일정

으로 총지종 기로스승 관불회가 영주부석사, 예산수덕사 등을 참배했다.

동참한 기로스승들은 부석사 무량수전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총지종 종조이

신 원정대성사와 열반 스승님들의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예산 수덕사에서 근대 한국불교의 선승인 만공선사 부도탑에 참배하고, 대웅전 석가모니 부처님께 견성성불의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서원했다.

기로스승들은 매일 저녁 한자리에 모여 종단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스승들은 현재의 교화 정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기로스승으로 현장 교화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직 스승들을 조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추계 관불회에는 총24명의 기로스승이 법상정사의 안내로 함께했다.

부여=법상 정사건화사 주교

# 아름다운 음성공양 용화도량을 울리다

## 2015 전국불교소리축제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



▲서울 마니합창단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불교합창단연합회가 주관한 「2015 전국불교소리축제」가 10월 15일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되었다.

전국불교합창단 소속 11개 합창단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단원만 1,5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다.

불교 총지종은 「서울·경기남부불교연합합창단」 일원으로 마니합창단 손경옥, 최영아, 조향숙, 김옥임, 윤혜련, 전화자, 성연주, 최혜선 보살이 참가했다. 부산 만다라합창단은 김운경, 김세화, 이경숙 보살이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개막식에서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법

어를 통해 "오늘 전국에서 모인 일천오백여 불교합창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신심과 원력에 찬탄과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금산사는 그 어느 도량보다도 수행과 신앙의 튼튼한 양 날개를 다 갖추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호국애민의 사적지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며 용화본산 미륵도량 금산사에서 대회가 열린 의미를 되새겼다.

식전행사로 가수 전지혜씨와 편승엽씨가 공연하여 개막의 분위기를 띄웠다.

전북불교연합합창단이 이어 두 번째로 서울·경기남부불교연합합창단은 김양희 선



▲부산 만다라합창단

생의 지휘와 양은영 선생의 반주로 무대에 올랐다. 「관세음보살 기원곡」과 「꽃 피울 때까지」 두곡을 연주한 합창단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여덟 번째로 무대에 오른 팀은 부산 불교합창단연합회 팀이다. 총 100여명의 규모로 등단한 합창단은 강영화 작곡의 '한글반야심경'과 이바노비치 작곡의 '도나우 강의 잔물결'을 금산사의 가을 축제에 모인 불자들에게 음성공양을 올렸다.

이번 불교소리축제는 금산사 개산대제와 세계종교문화축제 기간에 함께 열려 많은 불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찬불가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 자비 세상을 알렸다.

김제 금산사=김종열 기자

# 정각사 이상두 각자 부산다운건축상 금상 수상

## 정각사 설계 시공한 부산 건축의 달인



▲ 시상식에 함께한 정각사 스승들과 교도들

정각사 이상두 각자가 2015년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서 '부산다운 건축상' 금상을 수상했다. 10월 6일 열린 부산국제건축문

화제에서 주최한 시상식에서 '문현동 금융센터 다온플레이스'로 영예의 금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각사 주교 법상인

전수, 묘흥 전수, 해광 정사와 김운경 합창단장 등이 참석해 수상을 함께 축하했다.

'부산다운 건축상'은 부산에 소재한 완공 건축물 중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위상을 높여줄 건축물을 발굴, 시상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금융센터 다온플레이스'는 각 층을 외부와 내부가 관통되는 열린 'M'자로 만들어 단순 적층으로 쌓고 3갈래 길로 형성된 복도 등으로 다양한 공간을 창출하도록 설계했다.

이상두 각자는 부산 정각사를 설계 시공하였고, 진언행자로 수행을 게을리 하지않는 교도로 정평이 나왔다. 부인 이상록 보살도 합창단, 신정희 활동으로 사원의 대소사를 챙기고 있다.

부산 정각사=김운경 통신원

# 부산·경남 금강합창단 후쿠오카 관불

## 새로운 발전과 화합을 다짐



▲ 후쿠오카 성 '천수각'을 배경으로 기념촬영

불교총지종 부산·경남교구 금강합창단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 큐슈 후쿠오카로 관불을 다녀왔다. 금강합창단 김운경 단장을 비롯한 총23명의 단원들이 동참했다. 올 한해 봉축, 불교소리축제, 팔관회 등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금강합창단은 그 동안의 노고를 서로 치하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화합된 합창단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운경 단장은 "이번 후쿠오카 관불을 계기로 총지종 전연필교의 진리를 홍보하고,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비로자나 부처님 전을 올리기를 서원합니다."며 이번 관불의 의미를 밝혔다.

금강합창단은 오는 11월 11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부산불교합창제에 출연한다.

부산=정각사 이상록 통신원

총지종보 인터넷 뉴스(www.chongjinews.com)

## 총지종 종립 부산 동해중학교

# 교사 채용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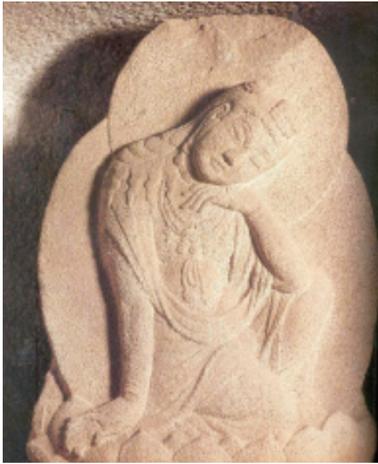
불교총지종 학교법인 관음학사 종립동해중학교에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2015년 11월 13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교도 및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2016학년도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위탁시행 추진일정

급별	시행공고	원서접수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시험일자	시험과목	시험일자	시험과목
중등	2015.10.13(화)	2015.11.09(월)-11.13(금)	2015.12.05(토)	-교육학(논술) -전공 (기입형, 서술형 및 논술형)	2016.1(일자미정)	-교직적성 심층 면접 -수업능력평가 (교수,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실기, 실험)



# 재가불자의 영원한 스승 유마거사 (1)



▲ 경주 석굴암 유마거사 상(像)

베살리성에 유마힐(維摩詰)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숭배했다. 장시일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항상 선한 일만했다. 항상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받고, 대승(大乘)이라는 거룩한 도(道)에 정통했다. 유마힐은 부처님의 깨달은 길을 체득하여 항상 마음이 슬기롭고 자비심이 넘쳤다. 그래서 부처님과 제자들, 제석천왕과 범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덕을 찬양하고 그에게 항상 경의를 표했다.

어느 날 유마힐은 대중들을 교화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병석에 누웠다. 유마거사가 병상에 누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왕부터 대신, 부자, 거사 바라문 등이 그의 집을 찾아 병문안을 했다. 그는 손님들에게 "이와 같이 위문을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견고하지도 않아 언제 가는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하지 않은

육체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조와 수 수 같아서 잡을 수도 쥘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어떤 인연으로 생겨난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뜬구름 같이 곧 변화해서 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 육체를 지배하는 나라는 것도 없고, 수명도 없고, 지혜도 없어 부정(不定)한 것입니다. 여러 분 들은 이 뜬구름 같은 육체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가진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육체의 병 따위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좀 지나친 말을 한 것 같으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라고 문병객들에게 무상, 고통, 허무, 무아의 네 가지 상을 설법하고, 인간의 육체는 의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했다. 그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진리에 귀의하겠다는 마음이 절로 우리었다.

문병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유마거사는 침상에 앉아 "나는 지금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부처님은 왜 나

를 찾지 않는 걸까?"하고 생각했다. 이때 저 멀리 정사(靜舍)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던 석가모니 부처님은 유마거사의 마음을 알고 수제자인 사리불을 불러 "사리불아 유마힐의 문병을 다녀오너라."하셨습니다.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유마힐의 병문안을 가지 않겠습니다."한다. 세존이 되 문기를 "왜 그러느냐?"했다.

사리불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깊은 산중에서 좌선 수행을 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가 와서 '사리불이여, 이 세상을 등지고 좌선만 하는 것이 수행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도의 깊은 뜻은 모든 장소가 공이며 모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 같이 모든 존재를 인정하면, 아무리 조용한 산속이라도 마음이 산란해져서 수행이 어렵습니다.'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며 유마거사에게 문병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부처님은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럼 안가고 좋다."하

셨다. 부처님은 목련존자를 불러 그에게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다녀오도록 했다. 그런데 목련존자도 병문안 가기를 곤란해 했다. 세존은 물었다.

목련존자는 "세존이시여, 제가 베살리성에서 많은 거사들에게 설법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유마거사가 저를 찾아와 '목련존자시여 당신 같은 설법은 안 돼요. 설법은 법(法) 같이 해야지, 지금 같은 저급한 설법을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법이란 성문, 연각, 보살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주의 만물, 그 실체는 공(空)이며, 이 모든 것이 평등하므로 증생이요, 나다, 수명이다, 사람이야, 예쁘다, 추하다라는 구별은 없습니다. 이 평등한 견지에서 설법을 해야 합니다.'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와 같은 책망에 대응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또 가까이에는 대단히 곤란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다음호 계속)



## 명사 칼럼

# 번뇌와 고통을 발효시키면

쓰레기가 발효되면 거름이 되듯이, 번뇌와 고통도  
잘만 소화시키면 나를 괴롭히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를 꾸짖거나 비난할 때가 문제다. 가만히 귀 기울여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가, 불쾌하게 생각하여 화를 내고 반발하는가.

하지만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맞서서 화를 내는 순간, 우리 마음은 부글부글 끓는 화탕 지옥이 되고 만다. 상대방의 비난이 근거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것은 아무 상관도 없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옥을 만드느냐 천국으로 만드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상대가 아무리 비난하는 말을 쏟아 놓더라도 귀 기울여 그의 말을 귀감으로 삼을 줄 안다면, 바로 그 순간, 상대도 나도 한꺼번에 부처가 된다. 왜 그러 한가? 상대는 내 중생심을 꾸짖으니 필경 부처일 것이고, 나는 그것을 거울로 삼아 더는 중생심에 물들지 않을 테니 청정한 불심으로 돌아선 것이 된다.

고통이 닥치면 우선 피하려 드는 것이 인자상정이다. 하지만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 병을 뿌리 뽑지 않으면 재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치는 번뇌와 고통도 그 원인을 살펴 뿌리째 뽑아야 한다.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대개는 그 원인을 밖에서 찾곤 한다. 남의 탓을 하기 일쑤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운명이나 팔자 탓을 한다. 그런 방법으로는 병의 원인을 뿌리째 뽑을 수가 없다.

세상 만물은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내게 와서 부딪히는 경계는 끝이 없다. 바깥에다 원인을 돌린다면,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의 뿌리를 어떻게 다 뽑을 수 있겠는가. 나뭇잎을 모조리 따낸다고 해도 잎은 따낸 자리에서 또 솟아날 것이다. 그러니 뿌리를 뽑아야 하고, 뿌리를 뽑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에서 원인을 찾고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변화하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변해야 한다. 번뇌와 고통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 하기 위한 길잡이요,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번뇌와 고통도 잘만 소화시키면 나를 괴롭히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사랑하는 마음엔 번뇌와 고통이 설 자리가 없다. 번뇌와 고통은 사랑이라는, 자비라는 울타리 밖의 소식일 뿐이다.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는 나와 남이

따로 없다. 내 속에 그가 있고 그 속에 내가 있는데 부딪칠 일이 어디 있으며 마뜩치 않을 일이 무엇 이겠는가.

상대가 잘났든 못났든, 잘못이 있든 없든, 부자들 거지든 가리지 않고 그를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분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주위는 온통 사랑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대개는 자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기껏해야 내 가족을 챙기는 정도다. 그것만을 부동케안고 놓지 않는다. 경계가 뚜렷하고 내가 쌓는 성이 견고할 수록 하는 일마다 번뇌가 쫓아오고, 부딪치는 데목마디에 고통이 따른다. 내 주변에 치는 담벼락

이 곧 번뇌의 씨앗이요, 고통의 뿌리인 것이다.

모든 고통과 기쁨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썩고 자라난다. 내가 내 주위에 경계선을 긋고 그 이상은 용납하지 않으려 들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 담벼락은 누가 만들었는가? 내가 만든 것이다. 나라는 개체의 보존과 번성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경계선을 긋고 담을 쌓는 것이다.

행복은 그 경계선 안의 영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너른 영토라도 언젠가는 빼앗긴다. 아무리 튼튼한 성이라도 언젠 가는 허물어진다. 내 영토의 크고 작음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성 쌓기의 잘되고 못됨에 따라 결정 되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오히려 영토를 내주는 데에 있고, 내 성을 허물어 트려 경계선을 지우는 데에 있다. 그럼으로써 내 마음의 영토는 오히려 더욱 더 넓어지고 기쁨지게 된다.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마련이지만, 그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큰 자존심이다. 상대의 언행을 나의 거울로 생각하고, 나를 공부시키는 좋은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럼으로써 그를 사랑하기까지에 이르면, 그런 사람은 번뇌와 고통을 발효시켜서 자기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전 신문인 김시행

# 총지종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b>정각사</b> 주 교: 전수 법상인 전수 묘 흥 정사 혜 광 ☎ 051-552-7901	<b>관음사</b> 주 교: 전수 정인화 ☎ 051-896-1578	<b>단향사</b> 주 교: 정사 혜 봉 ☎ 055-644-5375	<b>덕화사</b> 주 교: 정사시 정 전수 원만원 ☎ 051-332-8903	<b>밀행사</b> 주 교: 전수 금강륜 ☎ 055-354-3387	<b>법성사</b> 주 교: 정사 법 선 ☎ 051-468-7164	<b>삼밀사</b> 주 교: 정사서 령 전수 혜원정 ☎ 051-416-9835
<b>성화사</b> 주 교: 전수 수심정 기르스우지 광 ☎ 051-254-5134	<b>실보사</b> 주 교: 정사 덕 광 전수보 현 ☎ 052-244-7760	<b>운천사</b> 주 교: 전수 정원심 ☎ 055-223-2021	<b>일상사</b> 기르스우: 수 행 월 ☎ 055-352-8132	<b>자석사</b> 주 교: 정사 수 현 전수 자심관 ☎ 051-752-1892	<b>화음사</b> 주 교: 정사 록 경 전수 법수연 ☎ 055-755-4697	

# 업(業)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의식은 전오식(前五識)과 제육식인 의식(意識), 생명에 대해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말나식과 업종자의 보존처로서의 아뢰야식이 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불가사의라고 한다. 《화엄경(華嚴經)》과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는 5대 불가사의를 말하면서 ①중생다소불사의(衆生多少不思議) ②용력불사의(龍力不思議) ③선정력불사의(禪定力不思議) ④불법력불사의(佛法力不思議)와 함께 ⑤업력불사의(業力不思議)를 들고 있다. 업은 우리의 알은 견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불교의 업사상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인과관념이 결합한 것으로서 선인낙과, 악인고과(善因樂果, 惡因苦果), 자업자득, 자작자수(自業自得, 自作自受)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간과 우주의 현상에 대하여 ①결정론 ②우연론 ③무인무연론 등의 이론이 있었는데 바라문교에서는 초보적인 인과의 사상이 나타나 후일 윤회사상으로 발전했다. 타 종교에서는 선업과 악업의 과보로써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 발전시켰으나 불교에서는 연기론에 바탕을 두고 업사상을 전개했다. 업(業:kamma)은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의지는 곧 마음이며 모든 행위는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불교의 마음은 지(知), 정(情), 의(意)로 나누어지며 이 가운데에 업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의(意)이며 이것을 사(思:cetanā)라고 한다.

내면적 의지를 사업(思業)이라 하며 이것이 밖으로 나타났을 때 사이업(思已業)이라 한다. 사업은 곧 의업이며 사이업은 구업·신업이 된다. 또한 모든 업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며 善·惡·無記의 3가지에 포함된다. 불교에서의 선은 현세와 다음 생에서 자타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며 괴로움을 유발하지 않는 참된 선은 반야 바라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나타나는 업은 과를 낳는데 불교에서는 이를 심선업과 심악업으로 구분한다. 또한 업은 표업(表業)과 무표업(無表業)으로 나누어지며 업의 본질은 선·악의 무표업이다. 우리의 의지로부터 나타난 행위는 경

중, 선악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무표업으로 아뢰야식 속에 전존하여 미래의 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업종자(業種子:bjja)로서 무시이래로 부터 간직되어 현재의 마음 가운데에 전존하여 있다. 업은 思(의지)의 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생각은 無記로서 선도 악도 아니지만 자성선의 마음이 상응하면 선의 의지가 되고 자성악의 마음이 상응하면 악의 의지가 된다. 예를 들어 자성의 가운데에 진애가 일어나면 ①患에 상응하여 악사(惡思)가 되며 ②악사로부터 갖가지 사려분별이 생기고 ③심사(心慮) ④심사(心慮)에서 의지가 결정된다 ⑤결정사가 발동하여 구표업과 신표업으로 나타나며 이때 표업과 동시에 작용하는 의지를 동발승사(動發勝思)라고 한다. ⑥동발승사에 의하여 행위가 이루어지면 身·口의 표업과 동시에 무표업이 생겨 마음에 혼숙되어 업종자를 형성한다. 업의 종류에는 공업(共業)과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불공업(不共業)이 있고, 결

과가 명료하게 정해진 정업(定業)과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부정업(不定業)이 있으며, 인업(引業)과 만업(滿業) 등의 구분이 있다. 대체로 무거운 업은 정업이 되고 가벼운 업은 부정업이 된다. 우리의 의식은 전오식(前五識)과 제육식인 의식(意識), 그리고 생명에 대해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말나식과 업종자의 보존처로서의 아뢰야식이 있다. 말나식과 아뢰야식은 항행식(恒行識)으로서 단멸함이 없이 무시이래로 지속되며 미래에 까지 지속한다. 아뢰야식에는 육식으로써 받아들인 모든 것이 아뢰야식 가운데에 혼숙된 명연종자(名言種子)가 있고 말나식의 아집이 하나 하나 혼숙된 아집종자(我執種子)가 있으며 업종자로서의 유지종자(有支種子)가 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제육식인 의식의 업이 끝나지 않아서 명료하게 작용하고 있는 때인 명로심위(明瞭心位)를 거쳐 자체에 위(自體愛位)에 도달하는데 자체에 위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계에 대한 애착인 경계에



화령 정사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境界愛), 지금까지 누려온 생명에 대한 애착인 자체에 위(自體愛),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계에 태어나 같은 생을 누리려는 애착인 당생애(當生愛)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뢰야식 자체의 업이 끝나는 불명료위(不明瞭位)에 이르게 되는데 이 찰나에 전생(轉生)한다. 전생(轉生)의 찰나에 최후까지 아뢰야식에 붙어 떠나지 않던 말나식의 애가 연으로 되어 아뢰야식인의 무수히 많은 업종자 가운데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작용을 나타냄으로써 새로운 생을 받게 된다. 우리의 생각과 언행은 모두 업종자로서 아뢰야식에 보존되어 미래의 과를 낳기 때문에 수행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 강도 회사와 교화방편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은 경전, 교리, 수행법, 화도방편 등으로 열거된다. 그 가운데 수행법과 화도방편이 구체적으로 총지종에서는 바로 '진언염송'과 '불공' '회사법' 등이다.

중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중생을 제도하는 화도방편(化度方便)을 여러 가지로 시설(施設)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강도회사법(講度喜捨法)이다. 강도회이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밀교의 스승(아사리)이 행하는 회사법으로서 부처님께 발원과 함께 회사보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강도회사를 행한다. 국가와 중단, 교도가정의 안녕을 위하여 행하고, 국가와 사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또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의 소멸을 위하여 행하며, 불공과 관련하여 월초불공과 새해불공, 상하반기 49일 불공의 원만회향을 위하여 입제일과 회향일에 행하고, 천도불공을 비롯하여 각종 불공의식을 행할 때, 공사나 기타 사원 수리가 있을 때, 도량정정을 서원할 때, 중단이나 교도가정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도가정에 중요하고 긴급한 서원이 발생했을 때, 특별 불공을 시작할 때 등이다.

이외에도 대중적이고 공공성(公共性)을 띤 불공이나 행사, 법회, 특별서원이 있을 경우에도 행한다. 오직 성직자만이 행한다는 것이 강도회사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성직자가

중생을 위한 화도방편으로써 행하는 회사법이다. 강도회사를 행함으로써 서원하는 바를 속히 이루게 되고, 일체재난이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발원을 강도발원(講度發願)이라 하고, 그 회사법을 강도회사(講度喜捨)라 한다. 강도발원과 강도회사금을 적는 용지를 강도지(講度紙)라 한다. 강도회사(講度喜捨)의 어원은 명확하지 않다. 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강도(講道), 강설(講說), 강회(講會), 강원(講院)라는 용어에서 그 의미를 유추하는 정도이다.

모두가 부처님의 법, 가르침, 말씀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말이다. 講道(강도)는 '도(道)를 설한다' '도(道)를 강의하거나 연구한다'는 의미이다. 강설(講說)은 도(道)를 설하거나 강의하는 것, 즉 부처님의 말씀, 경전과 교리를 설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것으로 인왕백고좌강설 등이 있다. 강회(講會)는 강설하는 모임이나 법회를 말하는 것으로 백고좌강회가 있다.

또 강원(講院)이란 말도 있는데, 강설이나 강회의 장소나 기구를 말하는 데, 승가대학이 있는 곳을 말한다. 그런데 강창(講唱)이란 말을 내세우면서 총지종의 강도(講度)가 여기

서 유래되었다고 말하는 이가 있는데, 이는 근거가 미약하고 설득력이 없다. 강창에서 유래되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강창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면 강설, 강회 또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어느 것에서 유래된 것인지, 종조께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사 용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총지종에서 쓰고 있는 강도(講度)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을 통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은 경전, 교리, 수행법, 화도방편 등으로 열거된다. 그 가운데 수행법과 화도방편이 구체적으로 총지종에서는 바로 '진언염송'과 '불공' '회사법' 등이다.

강도회사를 통해 성직자로서의 책무와 사명감을 다시 되새기며 중생 교화의 방편과 정신을 계승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화를 위하여 성직자는 첫째 불공하고, 둘째 강도회사와 차시(差施)와 절량회사를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시(定施)와 정송(定誦)은 밀거름이며, 차시(差施), 절량회사(絕糧喜捨)를, 강도회사(講度喜捨)는 웃거름이다. 좋은 수확을 위해서 밀거름은 바탕이고, 웃거름은 결실을 위한 영양보충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큰 불공과 중요한 서원이 있을 때 강도회사를 겸하여 행하면 참으로 깊고 큰 공덕이 일어난다. 강도회사법을 불공과 교화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범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호독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종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광평로 590길 53 5층 503호 (5동) 5층 503호 ☎ 02-445-2326

# 밀교의 수법과 새로운 교화 방안을 찾아서

## 총기44년 총지종 전수 일본불교연수체험

정통밀교 총지종 전수들이 일본 불교연수 체험을 다녀왔다. 그동안 현장 교화와 용맹정진의 수행을 계속해 온 전수들의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교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연수다 밀교의 교법이 발전한 일본 불교현장에서 법회와 수법 등을 체험한 이번 연수에 동참한 전수 모두는 수행과 방안을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신승사 본당(本堂)

### 신소지 (新勝寺, 신승사)

10월 27일 15명의 총지종 전수 일본 불교체험연수단은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 동경의 나리타 공항으로 출발했다.

일본에 입국한 연수단은 간단한 점심 공양을 한 후, 나리타(成田)산 신소지(新勝寺)를 참배했다. 진언종 지산파의 총본산인 신소지는 일본 천황의 칙명으로 흥법대사(일본 진언종의 개산조)가 조성한 부동명왕을 본존으로 모시는 사찰이다. 이 존상은 오랫동안 교토의 다카오산 진고지(神護寺)에 안치되어 있었다. 939년 다이라노 마사카도가 반란

을 일으키자 스쿠자(朱雀, 주작) 천황의 밀명을 받은 고쇼 칸초(寛朝) 대사가 존상과 함께 간토(關東, 관동)으로 와서 시모우사 지방 나리타에서 21일간 평화기원 호마 공양을 봉행했다. 공양의 마지막 날인 940년 2월 14일 다이라노의 반란은 진압되고 이를 기념하여 신소지(新勝寺)라는 이름으로 산문을 열었다. 경내에는 대일여래(비로자나 불)를 주존으로 하는 광명당,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석가당, 일본 중요문화재로 등록된 삼중탑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스승들은 밀교의 교주인 대일여래 비로자나불께 참배하고, 일본불교연수가 무사히 마치고를 서원했다.



▲ 신승사 본당 앞 향공양처



▲ 신승사 3중 탑

### 이케가미혼문지(池上本門寺, 지상본문사)



▲ 역도산 선수 묘역에 참례

약 1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거쳐 동경으로 이동한 연수단은 이케가미혼문지(池上本門寺, 지상본문사)에 도착했다. 이 사원은 일본 니치렌(日蓮, 일련)종大本산으로 일본 불교의 큰 스님인 니치렌이 1282년 입적한 곳에 세워진 사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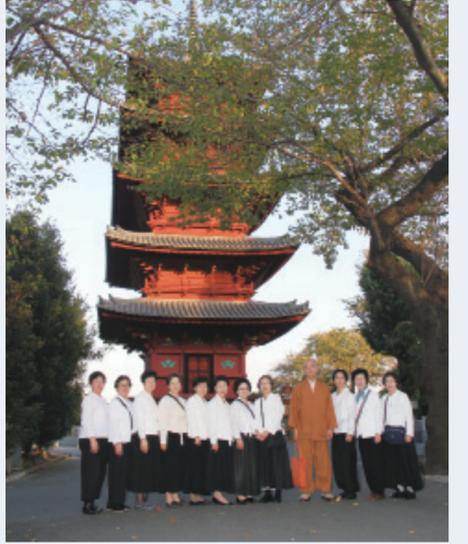
본당과 오중탑이 자리한 사원에는 일본 유명인사들의 무덤이 있기로 유명한

다. 본당 참배를 마친 스승들은 오중탑 원편에 안치된 재일교포 프로레슬러 역도산 선수의 묘에 들었다.

어려운 시절 재일교포와 우리 국민들의 영웅이었던 그는 한국프로레슬링의 대부인 김일 선수를 비롯한 많은 제자를 배출했고, 일본의 국회의원을 지낸 이노끼 선수의 스승이기도 하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와 함께 고인의 극

락왕생을 서원하고 흉상에 참례했다. 스승들은 처음 방문한 사원에서 만나 역도산 선수와의 인연을 세기며, 첫째날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이케가미 혼문지 5중 탑



▲ 일본 황거 입구 메가네 다리

### 일본 황거

둘째날 아침 불공과 공양을 마친 스승들은 먼저 일본 천황 가족이 살고 있는 황거를 방문했다.

천황은 일본의 군주로 지금은 정치에는 개입을 못하지만 일본 국민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는 지도자이다. 신과 왕은 하나라는 천신합일 사상은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신도를 숭상하는 민족이다. 천황의 조상이 한 반도에서 왔다는 도래인(渡來人)설은 많은 역사적인 사실과 유물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황거는 일본 국회를 뒤로하고 해자에 둘러싸인 전통 성곽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스승들은 해자 앞 메가네(안경) 다리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다.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서초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심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 가와사키 평간사 (平間寺)

연수단은 동경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가와사키 시로 이동했다. 이곳에는 진언종 지산과 총본산인 평간사가 있다.

이 사찰은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의 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이 관수로 있다. 총지종 연수단의 방문 연락을 받은 평간사는 도착에서부터 출발 할 때까지 극진한 환대를 했다.

본당을 참배한 연수단은 법등 통리원장의 집공으로 3.7의례로 불공을 올리고, 평간사 교화발전과 총지종 교세발전을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했다. 평간사 본당에서 봉행된 총지종 불사를 처음 본 일본인 참배객들도 옴마니반메후 육자 진언을 같이 염송하는 거룩한 장면이 연출 되었다.

평간사 스님들은 이날 방문한 일련종 스님들과 총지종 스승들을 위한 호마의

례를 열었다.

밀교의 전통 식재법인 호마는 본존 앞 방형단을 마련하여 결계하고, 다양한 공양물을 바치고 호마기라는 나무 장작을 태우는 의례이다. 호마의 불은 부동명왕의 지혜를 상징하며 번뇌를 상징하는 장작을 태워 교도들의 액재를 막고 소원을 성취하는 불사이다.

일한불교교류협회의 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은 연수단이 출발하기 전 버스에 올라 "지와 오랜 친구인 법등 정사님과 스승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한불교의 영원한 우정과 교류에 힘쓰시는 법등 정사님의 법운과 스승님들의 앞날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시력이 함께하시기를 서원합니다."며 인사의 말씀을 전했다.

스승들은 밀교의 정통 수법인 호마의례와 법구 사용등을 체험하고, 새로운 교화 방편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다음 순례지인 가마쿠라 대불로 이동했다.



▲ 평간사 본당에서 봉행한 총지종 불공



▲ 평간사 호마의례에 동참한 연수단



▲ 연수단에게 배웅 인사하는 일한불교 회장 후지타 류조스님



▲ 평간사 접대실에서 차 공양 하는 연수단

### 가마쿠라(小倉) 대불과 관월당

일본의 3대 불상으로 높이 13.4m의 거대한 가마쿠라 대불은 그 무게만 121톤이다. 스승들은 온화한 미소로 사바를 내려다보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상호에 감탄을 자아냈다. 다같이 합장 삼배로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미치기를 서원했다.

가마쿠라 대불 뒤편 후원에는 일제강

점기 당시 일본인이 구입하여 옮겨놓은 정자 관월당이 자리하고 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가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이다. 정면 세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단청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다. 조선의 궁궐에서 옮겨 왔다는 관월당을 만난 스승들은 아픈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문화재들이 자리를 잃고 어디로 떠드는지도 모르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일행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임제종 본산인 켄조지(建長寺)로 발길을 옮겼다.



▲ 가마쿠라 대불



▲ 가마쿠라 대불 뒤편 관월당

### 일본 선종의 본산 켄조지(建長寺.건장사)

가마쿠라 소군 시대의 수호사당으로 전쟁의 신인 하지만을 모신 신사인 츠루가오카 하지만 궁을 둘러 일본 선불교의 대표적인 종단 임제종 본산 켄조지(建長寺)를 참배했다. 일본 최초의 선종 사찰로 높이가 30M나 되는 삼문으로 유명하다. 약사여래를 모신 약사전과 석가모

니 고행상이 안치된 본당을 참배하고, 선방을 관람했다. 선방의 뒤편으로 펼쳐진 정원은 선불교의 정신을 담아 만산을 병풍삼아 작은 연못과 소나무, 그리고 잘 다듬어진 잔디밭이 인상적이었다. 스승들은 잠시 뒷마루에 앉아 가을 단풍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기도 했다.



▲ 가마쿠라 임제종 본산 켄조지



▲ 선원 뒤편 전통 정원

## 총기종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 서울경인교구

지 회 장 : 김 은 속  
부 회 장 : 박 경 회  
          : 손 경 옥  
총 무 : 이 인 성  
          : 홍 순 화  
재 무 : 양 재 범  
관 사 : 신 원 생  
          : 이 연 수

### 부산경남교구

지 회 장 : 신 인 록  
총 무 : 정 남 선

### 대구경북교구

지 회 장 : 한 영 란  
총 무 : 임 연 옥

### 충청전라교구

지 회 장 : 민 순 분  
총 무 : 이 민 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 선원 뒷편 뒷마루에서 가을 산을 바라보는 연수단



▲ 아미타지 주지 미즈노 스님의 전통 비파공연



▲ 말차 공양하는 연수단

### 동경 아사쿠사 칸논지(觀音寺)

셋째 날 아침 연수단은 하코네로 이동하기 위해 이틀간 여장을 풀었던 도쿄 그랜드 팔레스 호텔을 떠났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지만 이 호텔은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납치되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동경 시내의 아사쿠사 칸논지(觀音寺)는 동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거대한 본당 앞으로 사천왕문이 있고, 전통 상점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이사원은 아스카 시대인 서기 628년 이곳에 살던 어부 2명이 바다에서 건져올린 관세음보살을 모시기 시작한 것이 창건설화이다. 에도막부 시대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평온을 기원하는 사찰로 지정되기도 했다. 센소지(아사쿠사의 다른 발음)는 연간 3,000만명이 찾는 대형사찰로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찰 중의 한 곳이다. 일행은 참배 후 스카이트리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다.



▲ 칸논지에서 바라본 스카이트리



▲ 연간 3천만명이 참배하는 도쿄 최대 사찰 칸논지

### 하코네 국립공원과 아미타지(阿彌陀寺.아미타사)

동경에서 약 2시간 떨어진 하코네 국립공원으로 이동한 스승들은 화산분출로 생성된 칼데라 지형인 화코네 호수를 해적선을 타고 잠시 망중한을 즐겼다.

하코네 전철역에서 택시로 분승한 연수단은 약10여분 산길을 달려 작지만 맑은 사연을 간직한 아미타지(阿彌陀寺.아미타사)에 도착했다. 가파른 산길 끝에 위치한 사찰에 들어서자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신 제38대 주지인 미즈노 스님이 우리를 맞이하였다.

이 사원은 황녀 출신으로 막부 도쿠가와 가문으로 시집을 간 카즈노 미야 공주의 위패를 모신 사원이다. 공주는 작은 몸집으로 가문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병을 얻어 이곳 하코네에서 요양 중 세상과의 연을 다한다. 아미타사는 공주의 장례를 전담하여 치르고, 위패를 안치한 향화원을 건립했다. 도쿠가와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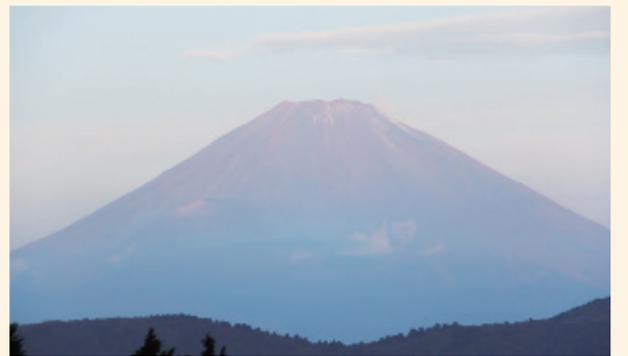
안의 조력으로 사원은 유지 되었으나, 지금은 주지 미즈노 스님이 참배객을 맞고, 차담을 나누며 사원을 지키고 있다.

주지 미즈노 스님은 정토종 본산인 동경 조조지(増上寺, 증상사) 소속으로 작고한 일한불교교류협회장 미야바야시 스님의 제자이다. 스님은 일본 전통 기예의 예능보유자로 비파 연주와 헤이안 시대 가요의 권위자이다.

미즈노 스님은 우리 연수단을 위해 특별 공연까지 펼치면서 한일불교교류협회의 사무총장 범등 통리원장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스승들은 따뜻한 말차 한 잔을 공양 받고, 산문을 나서 약 30분 거리의 하코네 역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하코네 등산 열차를 타고 산간 내륙으로 이동한 연수단은 하코네 산속의 조용한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 아미타지 본당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연수단



▲ 하코네에서 바라본 후지산의 일출

### 후지산의 일출과 사요나라 도오쿄오

일정의 마지막 날 아침은 조용히 밝아왔다. 어젯밤 비가 내리며 쌀쌀한 산간의 날씨를 보였던 하코네 지역은 얼마 전 화산활동으로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되기도 한 활화산 지역이다.

불공으로 아침을 맞은 일행은 눈앞에서 후지산의 장대한 모습을 만났다. 말로는 표현 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함에 감탄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열 번을 와도 한번 보기 힘들다는 후

지산의 비경을 볼 수 있었다. 온천과 산록의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동경으로 돌아와 마지막 순례 사찰인 정토종 7대 본산 중 하나인 조조지(増上寺, 증상사)를 참배했다.

본당에서는 법회가 진행 중이었다. 조용히 참배를 마친 연수단은 사찰 곳곳을 둘러 보며,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이룬 불사의 위대함을 새삼 깨달았다. 도쿄 타워를 배경으로 동경 시민과 일본인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된 조조지의 불법홍포를 기원하며 아쉬운 일정을 모두 마쳤다.

도쿄, 가와사키, 하코네=김종열 기자.



▲ 도쿄 조조지 본당과 도쿄타워

初發心自警言文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 ✓ 쉬운 번역!
- ✓ 간결한 표현!
- ✓ 읽기 쉬운 원문!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화령 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 되짚어보는 역동의 불교언론사

- 1910년 <원종> 발행부터 해방까지 잡지 전성시대
- 1990년대 비약적인 성장
- 1980년대까지 발전 쇠퇴 거듭
- 2000년대 다양한 매체로 변화 모색



▲ 불교계 신문들

충지정보가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역동의 현대사를 함께 한 충지정보를 보며 한국불교언론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불교계에 현대적인 의미의 언론이 출현한 것은 20세기 초반이다. 전등사 주지 김지순이 발행한 잡지 <원종>은 1910년 12월 창간했다. 단 두 호만 발행하고 멈췄지만 역불승유의 시대를 살았던 산속 불교가 처음으로 세속에 나와 중단을 창종하고 포교지까지 났다는 것은 의미 깊은 시도이자 역사이다.

<원종>이 최초의 잡지라면 <동양교보>는 국내 최초의 불교신문이다. <동양교보>는 <원종>보다 8년 앞서 창간된 신문이지만 공교롭게도 한국인이 만든 신문은 아니다. 일본불교 정토종이 1898년 12월 경성에 정토종기독교교소를 설치한 후 개교언론으로 전환하면서

발행했다. <동양교보>를 통해 1900년 초 당시 일본불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을 가감 없이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는 '월간 잡지' 전성시대로 볼 수 있다.

잡지 1호가 <원종>이라면 2호는 <조선불교월보>다. 1912년 2월 25일 창간된 <조선불교월보>는 권상으로 동국대 초대총장이다. 이 잡지 역시 원종주무원이 발행했다. <원종>의 부족한 점을 극복해 만든 불교종합잡지여서 당시 불교계의 현실인식과 불교계의 제반 정황을 잘 전하고 있다. 특히 1911년 반포된 사찰령에 대한 불교인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조선불교월보>의 뒤를 이은 잡지는 <해동불보>다. 1913년 11월 20일 창간한 <해동불보>는 <조선불교월보>의 내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탄생한 잡지다 <조선불교월보>의 성격과 유사한 면이 많다. 불교사상의 중흥을 목적으로 박한영이 사장을 맡아 간행한 잡지이다.

<불교진흥회월보>는 1915년 3월 15일 창간했다. 같은 해 12월 9호를 발간했던 이 잡지는 이능화가 편집 겸 발행인이고 불교진흥회 본부가 발행했다. 조선선교양종삼십본산주지 회의소에서 <해동불보>의 이름을 <불교진흥회보>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이름이 바뀐 것이다.

9호까지 발간 한 <불교진흥회월보>는 1916년 <조선불교계>로 이름을 바꾸고 세 번 더 발간했다.

<조선불교계>의 뒤를 이어 나온 잡지는 <조선불교총보>다. 1917년 3월 창간된 <조선불교총보> 역시 이능화가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았었다. 30본산연합사무소에서 펴낸 기관지의 성격이 강하다. 통권 22호까지 펴냈으니 그동안 나온 잡지들이 10호를 넘기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이었다.

<조선불교총보>가 중단되고 나온 잡지가 바로 만해 한용운이 발행한 <유심>이다. 1918년 9월 창간해 12월까지 단 3호만 발간하고 중단했다. 친일파들이 세운 원종과 일본 조종중에 맞서 만해가 벌인 임제종 운동의 일환이 바로 <유심> 창간이다. 자주적인 불교발전을 꾀하던 청년운동의 정신을 담고 있었다.

<유심>은 이후 만해스님의 뜻을 기린 후예들의 노력으로 무려 83년이 지난 2001년 봄 백담사 오현스님에 의해 복간됐다. 계간 지전문지로 다시 돌아왔다. 격월간을 거쳐 지금은 월간으로 발행되는 지전문 잡지이다.

<유심> 중단 후에 통도사에 있던 취산보림사가 <취산보림>을 창간했다. 1920년 1월의 일이다. 모두 6호를 냈는데 지식과 학문이 경쟁하는 사회에 바른 정신을 고취시켜 사회를 혁신하려는 목적으로 간행된 잡지이다. 같은 해 조선불교청년회 통도사 지회는 <조음>을 창간했다. 창간호만 전해지는데 <취산보림>과 마찬가지로 발행 편집인은 이종천이다.

1924년 5월에는 제일불교청회 기관지로 계간 <금강저>가 창간됐다. 1943년 1월까지 금강저사, 조선불교청년동맹·동경동맹, 조선불교동경유학생회로 발행처를 바꿔가며 모두 26호를 발간했다. 당시 한국불교계의 실상에 대한 분석 및 비판에 대한 글이 다수 실려있어 불교개혁에의 열망을 느낄 수 있다.

<금강저>가 창간되고 그해 7월, 조선불교회가 <불일>을 펴냈는데 동인지의 성격이 강했고 단 2호만 냈다.

일제 강점기 최대의 불교종합잡지는 1924년 7월 창간된 <불교>로 (재)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 경영한 불교사에 펴낸 월간잡지다. 1933년까지 총 108호를 발행하는 등 끈질긴 생명력과 방대한 정보를 자랑했다. <불교>는 1933년 휴간됐다가 1937년 <신불교>로 속간됐다. 1944년 12월까지 총 67권이 나오며 당시 불교계의 동향을 보여줬다.

일본이 발행한 <조선불교>는 1924~1936년 발행되는 동안 일제 침략의 선배대 역할을 했던 일본불교계의 조선불교단이 간행한 기관지다. 13호부터는 일본어 전용으로 나왔는데 일제의 불교정책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국 전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선학원은 1931년 10월 <선원>을 창간했다. 1년에 한권씩 총 4권이 나온 <선원>은 선의 내용, 선화, 선종의 역사, 선사 소개 등을 다뤘다. 지금은 월간 <선원>이 그 맥을 이어받아 월간지로 다양한 불교문화를 전하고 있다.

<선원>과 비슷한 시기에 조선불교청년동맹운동본부가 월간 <불청운동>과 <회광>을, (재)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 월간 <종보>를, 조영기 박봉석이 월간 <녹원>을,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우회가 <일광>을 각각 창간 발행했다.

<불교> 다음으로 많이 발행된 <불교시보>는 1935년 창간돼 1944년까지 105호를 찍어냈다. 교계 소식을 전달하고, 종교부활, 신앙고취를 내세운 잡지다. 하지만 1937년 이후 친일성향을 공개적으로 표방해 친일불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명백한 자료이기도 하다.

1935년 창간된 <금강산>도 1930년대 불교 상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잡지다. 10개월 동안 10호를 발행한 <금강산>은 금강산 불교회가 발행의 주체로 알려져 있다. 30년대 중반에는 지방에서도 잡지가 나오기 시작했다. 1935년 전주에서 <적광시보>, 1936년 경북에서 월간 신문 <경북불교>가 각각 창간됐다.

1929년은 불교언론사에서 기억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 경성방송국에서 김대은 스님이 불교사상 강연을 한 것으로 방송을 통한 한국불교 최초의 포교활동이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이후의 불교언론은 친일잔재 청산에 나선다. 1946년 창간된 <신생>은 그해 11월 중앙총무원이 <불교>로 개명하면서 중단됐다. 1947년 1월 창간된 <불교>는 중앙총무원이 기관지로 펴낸 잡지로 시사 평론 수필 교계소식 통신강좌 등으로 구성됐다.

1946년 월간 <불교신보>가 창간됐다. 혁신단체가 만든 불교 신문이다. 뒤이어 <대중불교>도 1947년 창간됐다. 2호 이후로는 존재를 찾아보기 어렵다. 1949년 창간된 월간신문 <불교공보>는 불교중앙교무원이 간행했다. 교단 집행부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반사회의 분위기도 담고 있다.

1947년 9월에 <녹원>이, 1950년 4월에 <동대신문>이, 1951년 주간 <불교신문>이 각각 창간됐다. 1957년 2월 격월간 종합잡지 <녹원>이, 4월엔 월간 <불교세계>가, 1958년 6월엔 월간 <정토 문화>가, 1959년 4월에는 <현대불교>가 각각 새롭게 발간됐다. <녹원>은 정태혁 동국대 명예교수가 발행했던 잡지로 비구 대처 분쟁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던 잡지다.

1960년 1월 '한 장의 불교신문 한 사람의 포교사'를 슬로건으로

<대한불교>가 창간된다. 지금의 <불교신문> 전신이다.

청담스님을 편집인으로 발간된 <대한불교>는 순간으로 창간해 6월부터 주간으로 전환된다. 1977년 3월부터 격주 8면을 내는 것으로 변화를 줬다. 1980년 정부의 언론통폐합 사태와 10.27법난의 여파로 1980년 11월 30일 정기간행물 등록이 취소됐다가, 12월 21일 주간지 <불교신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1980년대까지 불교언론의 중심은 잡지였다. 1962년 <불교 사상>, 1964년 <불교생활>, 1966년 <백련>, 1967년 <법륜>이, 1969년 <불교문화>가, 1970년 태고종의 월간 <불교>가, 1974년 광덕스님의 월간 <불광>이, 1979년 도선사의 <여성불교>가 각각 창간되며 불교잡지 전성시대를 연다.

1980년대는 신문과 사보가 화려한 꽃을 피웠다. 1982년 해인사의 월간 <해인>, 1983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월간 <불교사상>, 1985년 대한불교천태종의 <금강>과 대원회의 <대원>, 1984년 '포교사 전문지'를 표방한 <월간 법회>와 중앙승가대의 <승가>, 1985년 대한불교불입종의 <불입>, 격월지 <선사상>, 1986년 해인강원의 <수다라> 등이 발행됐다.

1973년 진각종의 <진각종보>, 1975년 천태종의 <천태종보>, 1988년 태고종의 <한국불교> 등 종단 기관지도 속속 선보였다. 1982년 격주간 <불교회보(주간불교의 전신)>를 시작으로, 1988년 <법보신문>, 1989년 <해동불교신문>과 <법무교화신문>, 1989년 <제주법보>와 <제주불교> 등이 속속 창간됐다. 1989년 월간 <현대 불교>와 1988년 월간 <정도>가 새롭게 창간해 교계에 새바람을 불어일었다.

1990년대는 방송과 인터넷의 시대다. 1990년 5월 1일 세계 최초의 불교방송 개국이라는 뜻 깊은 역사를 만든다. 1995년 부산 광주를 시작으로 1996년 대구, 97년 청주방송을 개국하며 전국방송으로 발전했다.

신문 창간도 이어졌다. 1990년 <대한불교>를 시작으로 <동국 불교> <경기불교> <강원불교> <대구불교> <정도불교> 등이 속속 창간됐다.

1994년 <현대불교신문>, 1995년 <충지종보>, 1996년 <경인불교>, 1994년 <근부불교신문>, 1997년 <호남불교신문>, 1992년 <해동불교신문> 등 수많은 신문이 창간되었다가 몇몇 매체를 제외하고는 경영난으로 사라져가기도 했다.

1995년은 방송포교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다. 바로 세계 최초의 불교영상포교매체인 불교텔레비전(btn)의 개국이다. 1999년에는 계간 <불교평론>이 등장해 불교언론사에 한 획을 그었다.

2000년대 들어 <불교포커스> <불교닷컴> <미디어부터> <불교저널> <불교플러스> 등 인터넷 언론과 <우리불교신문>이 등장하며 불교언론계는 다양한 변화를 모색했다. 이후 불교언론은 안정기를 거쳐 소수정예만이 살아남았다.

불교언론은 포교와 사회정화를 목적으로 존재한다. 불교적 방법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교 언론의 성장과 발전에 불자들의 도움이 꾸준히 필요하다.

-<불기협 10년사> '한국 근현대 불교언론 변천사'에서 발췌 정리



포항 수인사 교도 금화보살입니다 20년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버섯 맛간장' 을 선보입니다. 모든 재료 하나 하나 정성껏 준비해 교도 여러분의 건강을 서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많은 분들이 맛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전화 (054)231-2520  
전화주문 요리의 명가 다미쿡(DAMI-COOK)

## 금화보살 버섯 맛간장

재료  
표고버섯 · 팽이버섯 · 느타리버섯 · 송이버섯 · 다시마 · 무 · 양파 · 통마늘 · 통생강

버섯의 효능  
장운동 · 변비 · 콜레스테롤 · 혈당 당뇨 · 발암물질배출  
숙취해소 · 항암효과 · 탈모 · 구토 · 설사 ·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간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바다의 불로초 다시마의 효능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당뇨예방  
갑상선예방 ·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가격  
대(大, 1.8리터) 20,000원  
소(小, 0.9리터) 10,000원  
※ 10병 이상은 무료 배송 합니다.



# 한반도 개항의 중심이자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고장

## 인천의 어제와 오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서울의 서쪽 관문인 인천은 역사의 한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를 지닌 도시다. 인천은 1883년 대한제국이 제물포를 개항함으로써 한반도의 신문물 중심이 됐다. 또한 6.25 전쟁에서는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의 판도를 뒤집은 역사를 지닌 고장이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인천시 중구 송학동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다. 인천지역의 향토사와 문화유산을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1990년 서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연수구 옥련동 청량산 자락에 고인돌을 형상화한 현재의 건물로 신축 이전하였다.

지금도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활발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물관 바로 옆은 인천상륙 작전기념관이 있어 6.25 전쟁의 참상과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교육의 장소를 제공한다.

### 선사시대의 인천부터 지금까지

#### 역사 1실



박물관 현관을 들어서면 먼저 역사실을 관람할 수 있다. 선사시대부터 고려 말까지 인천의 주요 유적과 유물을 전시한다.

특히 문학산 일대와 계양산 주변이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계양구 동양동에서 발굴 조사된 삼국시대 초기의 토광묘를 비롯하여, 인천의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인주 이씨 가문의 '이자연 묘지명' 등의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또한 경서동 출토 녹청자를 비롯하여 강화 선두리 출토의 도기와 창후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도자류를 통하여 고려시대 도자문화의 화려함을 느낄 수 있다.

#### 역사 2실

조선시대부터 8.15 광복 이전까지 인천의 자료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남동구 도림동 파평 윤(尹)씨 소남 종택의 고문서를 통하여 주자성리학에 충실한 사대부문화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1883년의 개항을 기점으로 밀려드는 서구문물의 한가운데 서 있던 인천을 통해 시련의 한국근대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1918년 완공된 인천항 도크와



일제강점기 아래 최대 호황을 누리던 시기 인천의 거리모습은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인천항의 선박 출입항 과정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청소년들에게 체험의 공간을 제공한다.

#### 공예실



원저단경호, 광구병 등의 삼국시대 토기로부터 고려청자를 거쳐 조선백자와 분청사기, 그리고 철화와 청화백자의 아름다운 선과 색상 등 우리나라 도자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조선 시대에 제작된 불상과 보살상 각 1구씩과 중국 명대에 제작된 청동관음보살상이 전시되어 있으며, 특히 명대 관음보살상은 제작시기와 발원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명문이 남아있는 흔치

않은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여러 목제품도 공예실에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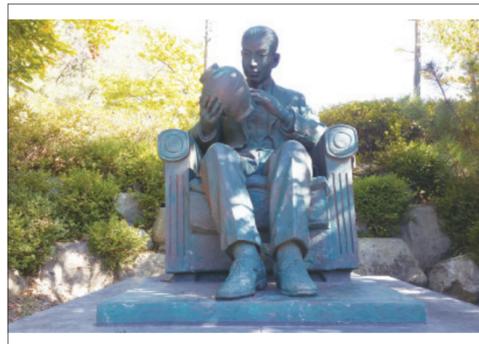
#### 서화실

조선시대의 회화와 고문서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산수화, 화조화, 사군자 등 다양한 장르의 회화를 선보인다. 강세황, 김홍도, 이하응, 정수영 등 대가들의 작품들을 눈여겨 볼만하다. 서화실의 한편에는 조상들의 철학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고문서류와 대각국사 의천의 탐비, 북관대첩비의 탁본 등도 전시되고 있다.

#### 기증실

1946년 개관 때로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기증, 기탁된 유물을 선별하여 전시하였다. 특히 인천 태생으로 한국 미술사의 개척적 업적을 쌓은 우현 고유섭(1905-1944) 선생의 유품과 주요 저작물을 비롯하여, 서구 공존동에서 출토된 속의 문예 묘지석 2매 등 귀중한 유물들을 볼 수 있다.

#### 인천 사람 우현(又玄) 고유섭 선생과 한국 미술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광장에는 한 젊은 학자가 도자기를 복있는 동상이 하나 서 있다. 바로우현 고유섭 선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미술사학의 문을 연 선구자다.

1905년 인천에서 출생한 선생은 1925년 서울 보성고등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철학과에서 미학과 미술사를 전공하였다. 대학에서 미학 및 미술사에 입문한 선생은 리글학과와 벨플린학과와 실증적인 학문에 매료되었다. 또한 서양미술사, 동양미술사, 중국미술사, 일본미술사 등의 미술사 강의를 접하면서 조선미술사 연구에 원대한 포부를 키운다.

1930년 졸업 후 경성제국대학 미학연구실의 조수로 근무하면서 국내의 중요한 고대 미술품의 조사와 연구에 매진한다. 중국, 일본, 인도와 구별되는 한국 특유의 미의 본질을 찾고자 한국의 불교 조각과 탑 연구, 고구려 미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1933년 3월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한 고유섭 선생은

10여 년간 박물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유물의 자료수집과 연구, 유적의 답사, 유물의 실전에 매진하였고 방대한 양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때 그의 미술사 연구의 초점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석탑에 대한 연구였다. 삼국 중 백제와 신라, 통일신라 때의 석탑들을 양식론에 입각하여 체계화하였다.

사후 그의 연구결과를 모아 황수영 전 동국대 총장 등이 책으로 간행한 것이 『조선탑파(韓國塔婆)의 연구』(1948년)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고대 조형(造型)을 질과 양으로 대표하는 탑파에 관한 최초의 학술적 논의이자 역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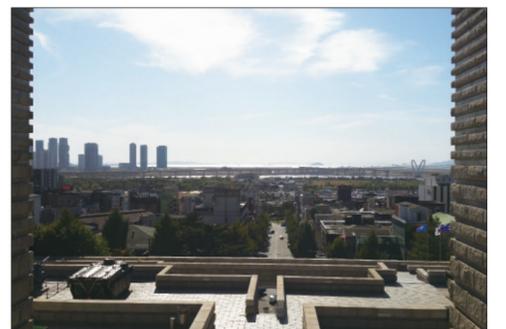
고유섭 선생은 석탑뿐 아니라 불교미술의 전 분야에 걸쳐 관심을 가졌다. 특히 불교조각의 발전에 주목하였다. 1940년 발표한 「한국의 조각」에서는 처음으로 조각을 중심으로 미술사적 시기구분을 시도하였고, 각 시대별 조각의 양식적 변화와 특징을 정리하였다.

또 1930년경부터 회화사 연구를 시작하여 규장각 장서를 중심으로 회화에 관한 문헌을 발췌하는 작업을 5~6년간 진행하였다. 이는 사후에 『조선회화집성』으로 출간되었다. 조선시대 회화사연구는 화론(書論)의 집성에서 시작하여 안건(安堅), 강희안(姜希顔), 정선(鄭敼), 김홍도(金弘道) 등 화가별 연구에까지 이르러 한국회화사의 기틀이 되었다. 고려시대 회화에 관한 연구들은 지금도 능가하기 힘든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고려청자를 중심으로 한 도자기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 20여 편의 논문을 남겼다.

고유섭 선생은 이밖에도 우리 미술사 전반에 관한 글을 꾸준히 발표하였고 미술사 기초자료 수집에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 안타깝게도 1944년 40세의 젊은 나이로 병사하였다.

선생이 생전에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한 글들은 죽은 뒤 제자이던 황수영(黃壽永), 진홍섭(秦弘燮)이 『한국미술사급미학논고(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1963년)·『조선회화집성(朝鮮會話集)』(1965년)·『한국미술문화사논총(韓國美術文化史論叢)』(1966년)·『송도의 고적』(1977년) 등으로 간행하였다.

고유섭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국내에서 우리 미술사와 미학을 본격적으로 수학한 학자이자, 우리 미술을 처음으로 학문화한 학자로서 높이 평가된다. 그의 우리 미술사에서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우현상(又玄賞)'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박물관에서 바라본 송도 신 도시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자세방의 본질은 인간에게 성취한 불보살님께 정인도량을 차원으로 나타낸 만다라 불가형에 모셔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수 있, 인인유 맺으실시오.

- 전체문의 \_ 불교총지중 동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에 문의하셔도 구인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311  
불교총지중 유자씨

### 1. 만다라 세트 (규장계 만다라 1배장계 만다라)

33cm X 33cm (세트 포함)  
30,000원



대장계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필요한 경우만 따로 하셔도 정해하시는  
대장계 만다라입니다.  
대장계 만다라 크기에 만다라는  
대장계 만다라에 맞춰 맞춰 가는 것에 비유하  
는 데, 대장계 만다라에 맞춰 맞춰 가는 것은  
대장계 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필요한 경우만 따로 하셔도 정해하시는  
이 만다라는 금강계 만다라입니다.  
대장계 만다라 크기에  
대장계 만다라 크기에 맞춰 맞춰 가는 것에 비유하  
는 데, 대장계 만다라에 맞춰 맞춰 가는 것은  
대장계 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가성다라니

46cm X 27cm (세트 포함)  
27,000원

유자씨 불교총지중

가성다라니

###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8호  
해인사대적광전비로자나불삼존상 (海印寺大寂光殿毘盧舍那佛三尊像)  
지정(등록)일: 1972.02.12  
소재지: 경상남도 함천군 해인사길 122 (가야면, 비로전)  
시대: 조선시대



▲유형문화재 제38호  
해인사대적광전비로자나불삼존상

신라 애장왕 때 창건된 경남 함천 해인사의 대적광전에 있는 불상이다. 대적광전은 팔만대장경을 지니고 있는 법보사찰(法寶寺刹) 해인사의 중심법당이다. 불

상은 원래 금당사(金堂寺)에 있었던 것이며 고종 1년(1897)에 현재 위치로 옮겨서 모시고 있다.

본존불은 머리에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이마 위에는 반달 모양이 표현되어 있다. 옷은 양 어깨에 걸쳐 입고 있으며, 넓게 파인 가슴에는 옷자락을 집어넣고 있고 양 다리에는 물결 모양의 옷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손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일반적인 손모양이다.

본존의 왼쪽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오른쪽에는 실천을 통한 자비를 상징하는 보현보살이 위치하고 있다.

자세가 장중하고 온화한 가운데서도 위엄이 갖추어진 조선 초기의 작품으로 보인다.

자료제공=문화재청



"불교총전" 자기에 대한 덕려편 371p 제32절 제책-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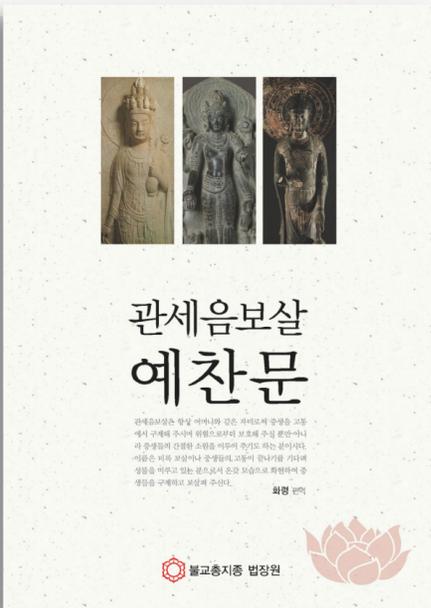
##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 18. 백연화수(白蓮華手) 진언



옴바야라 미라야 사바하

온갖 공덕을 성취하려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화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사가 8,000원 (10권 이상)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증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음마니반메혹의 의미와 수행법